

# 월간 ICT 산업 동향





# Contents

## I. 수출 동향 .....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 ⑥ 이차전지 |
| ⑦ SW         |        |

## II. 트레이드 GPS ..... 29

1. EU - 가정용전기기기 ..... 30
2. 디스플레이 장치(모니터) ..... 35
3. Ex-Briefing ..... 39

## III. 부록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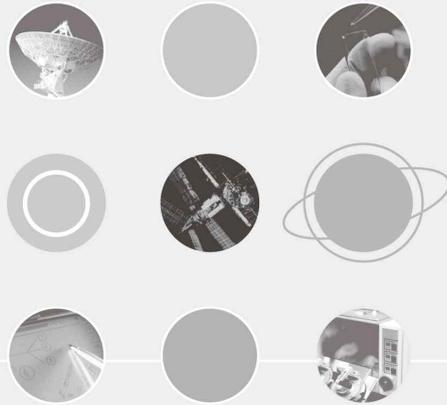
1. ICT 생산 통계 ..... 44
2. 2022년 8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 45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 52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0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 61





# I

## 수출 동향



# I 수출 동향<sup>1)</sup>

## 1 개요

- '22.8월 ICT 수출은 193.1억 달러(△4.6%), 수입은 135.2억 달러(18.7%↑) 기록
  - (수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침체가 확산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193.1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품목별로는 이차전지 등이 늘어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이 감소했으나 EU 등이 증가

표 1-1 |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전체
전세계	109.6 (△6.8)	20.9 (△5.3)	11.4 (△3.3)	12.6 (△25.3)	9.4 (35.8)	193.1 (△4.6)
중국(홍콩)	57.4 (△17.9)	6.9 (△23.6)	6.6 (43.3)	3.7 (△42.7)	0.7 (△3.0)	82.7 (△14.4)
미국	7.8 (△4.7)	0.1 (△42.5)	0.6 (△73.1)	5.0 (△6.8)	3.9 (46.6)	23.4 (△5.2)
일본	1.1 (△11.6)	0.1 (57.0)	0.2 (70.2)	0.4 (△29.0)	0.3 (17.9)	3.4 (△4.3)
EU	2.1 (△13.4)	0.8 (243.2)	0.6 (△26.6)	1.7 (△18.1)	2.6 (30.1)	10.5 (4.7)
베트남	13.1 (△2.9)	11.0 (△6.2)	1.5 (△44.8)	0.3 (356.1)	0.4 (33.8)	30.0 (△8.1)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18.7% 늘어난 13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반도체(67.2억 달러, 26.1%↑), 휴대폰(9.9억 달러, 29.6%↑), 디스플레이(4.1억 달러, 16.3%↑) 등은 증가한 반면 컴퓨터·주변기기(13.2억 달러, △5.3%) 등은 감소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36.0억 달러), 미국(16.4억 달러), 베트남(16.3억 달러), EU (4.2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57.9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분 (억 달러, %)		2022년		2021년	
		8월P	1~8월P	8월	1~8월
수출	전체 산업	566.7 (6.6)	4,677.7 (13.6)	531.7 (34.7)	4,117.6 (27.6)
	ICT	193.1 (△4.6)	1,610.4 (12.8)	202.3 (33.0)	1,427.4 (24.1)
수입	전체 산업	661.5 (28.2)	4,925.0 (25.9)	515.8 (44.0)	3,910.9 (28.4)
	ICT	135.2 (18.7)	1,011.2 (18.2)	113.9 (23.8)	855.3 (19.1)
무역수지	전체 산업	△94.7	△247.3	15.8	206.7
	ICT	57.9	599.3	88.5	572.1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 2 반도체

### 1) 수출 환경

#### □ '22년 반도체 시장, 지속 성장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성장 폭은 둔화 전망

- (시장 전망) '22년 반도체 시장은 6,3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성장할 전망.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수요 감소 요인이 존재(Gartner, '22.6월)
  - '22년 반도체 시장은 제품 공급 부족의 완화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의 對중국 수출 규제 및 금리 인상 등의 여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위축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하면서 ICT 제품 시장이 위축돼 성장 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한편 WSTS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22년 16.3%에서 13.9%로, '23년 5.1%에서 4.6%로 각각 하향 조정
  - (메모리 반도체 : 1,899억 달러, 14.5%↑) 주요국의 물가 상승 심화와 TV·PC·스마트폰 등 세트 제품에 대한 수요는 둔화되나 데이터 센터 등 서버용 수요가 상승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으로 '23년 시장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 트렌드포스는 D램 및 낸드플래시의 '22.3분기 가격이 '22.2분기 대비 각각 10~15%, 30~35% 하락할 것으로 추정
  - (비메모리 반도체 : 4,493억 달러, 4.7%↑) 반도체 공급 부족이 개선됨과 동시에 AI 및 자율주행·전기차 등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한편 '23년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ICT 제품 수요 감소 및 시장 축소로 '19년 하락세 이후 4년 만에 하락 예상

#### □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하락 등 반도체 시장 불황에도 주요 업체들의 투자는 지속

- '22.8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은 완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로 하락 추이 지속
  - (D램) PC용 제품(DDR4 8GB 기준)은 전월 대비 1.04% 하락한 2.85달러를 기록하면서 '22.7월 2달러대로 급락(△14.03%)한 후 2개월 연속 감소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 범용제품(MLC 128GB 기준)은 4.42달러로 전월 대비 1.67% 하락. 전월(△3.75%) 대비 하락폭은 둔화됐으나 '22.6월 이후 3개월째 내림세 지속
  -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정보통신기기 수요 위축 등으로 세트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가 증가했으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가격 하락을 야기

- 특히 국내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 비중이 높아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

**그림 1-1 |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재인용, 고정거래가격, 2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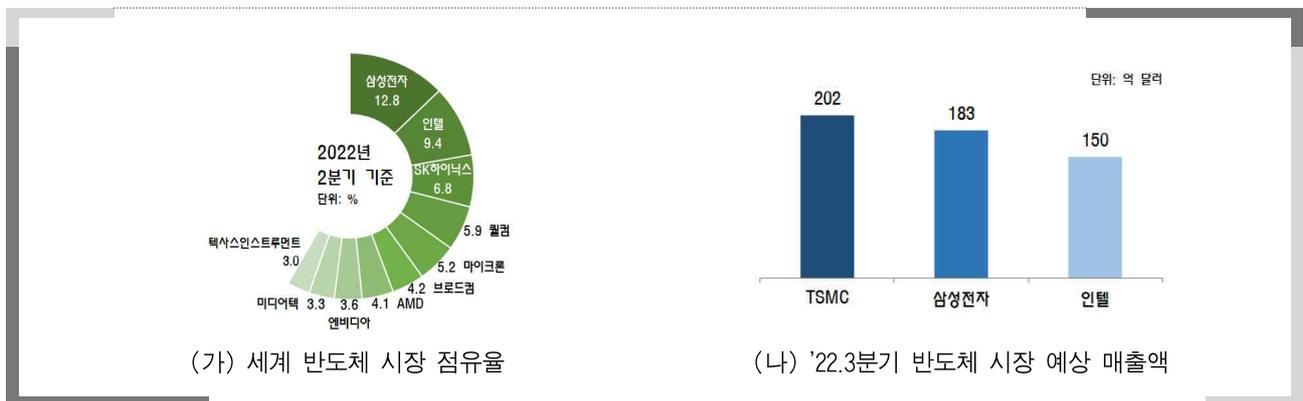
- 반도체 수요 감소 및 메모리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시장 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찾아올 반도체 호황기에 대비해 글로벌 업체들은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
  - (삼성전자) '22.7월 평택 3공장(P3)에서 낸드플래시 생산을 시작했으며 향후 시장 수요에 맞춰 극자외선(EUV) 공정 기반 D램과 5nm 이하 파운드리 등 첨단공정도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 또한 평택 4공장(P4) 착공 준비를 시작하는 등 평택 캠퍼스 내 총 6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할 예정
    - ※ 'P3'는 단일 라인 길이 700m, 면적 99만 1,000㎡로 반도체 제조 시설 중 세계 최대 규모
  - 또한 '22.8월에는 시흥 캠퍼스에 차세대 R&D 단지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28년까지 단지 조성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을 조성하는 등 반도체 투자를 확대
  -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제2 파운드리 공장 기초공사에 착수
  - (SK하이닉스) 올해부터 15조 원을 투자해 '25년 초 완공을 목표로 청주의 약 6만㎡ 부지에 'M15X'(M15 확장 공장)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미국에 150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연구·개발 및 메모리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반도체 고성능화·슬림화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을 설립
  - (해외 업체) TSMC는 3년간 1,00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텔도 반도체 공장 신설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투자 진행을 예고. 마이크론은 4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 확대를 예정하는 등 글로벌 업체의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



### □ 삼성전자, '22.2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으나 3분기엔 TSMC에 역전 위기

- '22.2분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581억 1,3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 이 중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합계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하여 19.6%를 기록하며 전 분기(18.7%)보다 0.9%p 상승(연합뉴스, '22.9.18일, 원소스 OMDIA)
  - (삼성전자) 매출은 203억 달러로 역대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면서 점유율은 전 분기(12.5%) 대비 0.3%p 상승한 12.8%를 기록하여 1위를 달성
  - (인텔) 시장 점유율 9.4%를 차지하여 전 분기(11.1%) 대비 1.7%p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22.1분기 1.4%p에서 3.4%p로 확대
  - (SK하이닉스) 전 분기(6.2%) 대비 0.6%p 증가한 6.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인텔의 뒤를 이어 글로벌 3위로 상승
  - 퀄컴이 5.9%로 4위, 마이크론이 5.2%로 5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브로드컴(4.2%), AMD(4.1%), 엔비디아(3.6%), 미디어텍(3.3%), 텍사스인스트루먼트(3.0%) 순으로 10위권에 랭크
-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 및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TSMC의 약진으로 '22.3분기 삼성전자의 1위 유지는 불투명
  - '22.3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TSMC가 매출 202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삼성전자(183억 달러)와 인텔(150억 달러)을 앞설 것으로 예상(신아일보, 9.18일, 원소스 IC인사이드)
    - ※ 한편 TSMC는 반도체 시장 약화에도 '22.8월 매출이 전월 대비 16.7%,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한 2,181억 3,200만 대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삼성전자의 주력 품목인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22.3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파운드리 사업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의 영향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기대

그림 1-2 |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및 3분기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



자료 : 연합뉴스, 2022.9.18.(원소스 OMDIA) / 신아일보, 2022.9.18.(원소스 IC인사이드)

## 2) 수출 동향

### □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에 반해 메모리 반도체 부진으로 '22.8월 수출은 하락 국면

- **(품목별)** 시스템 반도체는 상승했으나 메모리 반도체의 급락으로 '22.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109.6억 달러로 '20.6월 이후 26개월 만에 반락
  - (메모리 반도체 : 57.5억 달러,  $\Delta 24.7\%$ ) 낸드플래시는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여 D램, 메모리 MCP, 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등이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
  - (시스템 반도체 : 46.6억 달러,  $31.0\% \uparrow$ ) 디지털 전환 수요 지속 및 파운드리 등을 중심으로 한 선전으로 28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및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이 감소
  - 중국(홍콩 포함, 57.4억 달러,  $\Delta 17.9\%$ )은 시스템 반도체( $14.4\% \uparrow$ )와 낸드플래시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부진 및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D램·메모리 MCP·MCOs 수출 감소로 전체 메모리 반도체( $\Delta 28.9\%$ )가 감소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하락 유지
  - 베트남(13.1억 달러,  $\Delta 2.9\%$ ) 역시 시스템 반도체( $37.0\% \uparrow$ )의 성장세에도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외한 메모리 반도체( $\Delta 25.2\%$ )가 급락하여 '21.3월 이후 17개월 만에 하락 전환

**표 1-3 |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8	9	10	11	12	'22.1	2	3	4	5	6	7	8
반도체	117.6 (41.8)	122.3 (27.4)	112.3 (28.4)	120.9 (39.5)	128.4 (34.5)	108.9 (24.1)	104.5 (23.8)	132.0 (37.9)	108.9 (16.0)	116.1 (14.9)	124.8 (11.1)	113.8 (3.1)	109.6 ( $\Delta 6.8$ )
메모리	76.4 (50.6)	79.5 (28.6)	69.5 (28.1)	76.4 (47.3)	84.1 (40.3)	64.8 (21.9)	63.3 (21.3)	82.0 (34.0)	63.8 (7.7)	72.8 (10.8)	77.9 (3.2)	61.7 ( $\Delta 13.5$ )	57.5 ( $\Delta 24.7$ )
D램	37.6 (55.1)	37.8 (28.7)	35.6 (41.1)	37.1 (56.1)	41.3 (64.6)	32.0 (34.3)	31.8 (40.1)	38.9 (44.3)	32.4 (12.9)	37.1 (27.9)	38.8 (14.9)	32.7 ( $\Delta 7.0$ )	27.9 ( $\Delta 26.0$ )
낸드	5.7 (12.5)	6.6 (13.0)	6.3 (25.5)	6.2 (24.0)	6.4 ( $\Delta 5.8$ )	5.2 (6.8)	6.3 (36.9)	7.5 (68.8)	7.4 (51.0)	8.0 (36.8)	7.9 (32.0)	7.4 (49.3)	6.2 (9.3)
메모리 MCP	28.2 (58.9)	30.3 (34.3)	23.5 (19.8)	30.2 (57.6)	31.3 (31.3)	24.1 (16.4)	21.1 ( $\Delta 1.5$ )	30.5 (19.9)	19.8 ( $\Delta 9.9$ )	24.1 ( $\Delta 11.9$ )	25.1 ( $\Delta 21.9$ )	18.3 ( $\Delta 32.6$ )	20.8 ( $\Delta 26.5$ )
메모리 MCOs	4.7 (32.9)	4.7 (19.4)	3.9 ( $\Delta 7.3$ )	2.8 ( $\Delta 26.9$ )	4.9 (21.9)	3.4 ( $\Delta 6.4$ )	4.0 (20.3)	5.1 (19.1)	4.1 (15.3)	3.5 (3.4)	6.1 (72.5)	3.2 ( $\Delta 20.5$ )	2.5 ( $\Delta 46.6$ )
시스템 반도체	35.6 (31.2)	37.5 (31.7)	37.3 (32.3)	39.0 (31.1)	38.9 (30.1)	38.7 (33.0)	36.1 (33.9)	44.5 (53.5)	40.0 (36.4)	38.3 (26.8)	41.8 (33.3)	46.8 (40.4)	46.6 (31.0)
개별 소자	1.5 (19.5)	1.5 (2.4)	1.5 (4.1)	1.5 ( $\Delta 4.0$ )	1.5 ( $\Delta 1.3$ )	1.4 ( $\Delta 4.0$ )	1.4 (0.2)	1.6 (2.9)	1.5 ( $\Delta 3.6$ )	1.5 (3.7)	1.4 ( $\Delta 5.4$ )	1.3 ( $\Delta 21.6$ )	1.3 ( $\Delta 12.8$ )
광전 소자	2.6 ( $\Delta 2.4$ )	2.4 ( $\Delta 19.5$ )	2.5 (3.9)	2.5 (5.4)	2.5 ( $\Delta 14.7$ )	2.4 ( $\Delta 13.4$ )	2.0 ( $\Delta 23.1$ )	2.0 ( $\Delta 24.6$ )	2.0 ( $\Delta 21.1$ )	1.8 ( $\Delta 27.5$ )	2.1 ( $\Delta 22.6$ )	2.3 ( $\Delta 5.7$ )	2.4 ( $\Delta 7.9$ )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1	중국	502.5	25.9	39.0	중국	43.5	-3.6	39.7	374.7	21.0	40.8
2	홍콩	265.9	28.2	20.7	홍콩	13.9	-43.9	12.7	135.2	-21.3	14.7
3	베트남	140.3	21.9	10.9	베트남	13.1	-2.9	12.0	108.9	27.6	11.9
4	대만	107.0	67.9	8.3	대만	11.9	22.3	10.9	87.4	31.5	9.5
5	미국	95.2	18.0	7.4	미국	7.8	-4.7	7.1	66.2	12.5	7.2
6	싱가포르	38.3	48.5	3.0	싱가포르	5.9	94.4	5.4	40.4	72.2	4.4
7	필리핀	38.0	31.0	2.9	필리핀	3.1	-24.4	2.8	28.4	21.3	3.1
8	말레이시아	16.5	22.7	1.3	인도	2.7	117.8	2.4	15.5	87.5	1.7
9	일본	13.9	28.9	1.1	말레이시아	1.8	22.1	1.6	12.5	21.0	1.4
10	인도	12.6	18.0	1.0	일본	1.1	-11.6	1.0	9.5	7.5	1.0

자료 : IITP, KTSPI

### 3 디스플레이 패널

#### 1) 수출 환경

#### □ 올해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2분기 TV 시장의 큰 폭 감소 등으로 하락 전망

- (시장 전망) 대형 패널 시장과 중소형 OLED 시장 전망에 희비 교차
  - (대형 시장) '22.2분기 TV 시장(4,353만 대,  $\Delta 9.0\%$ )은 코로나19 특수 종료에 따라 교체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07.2분기(4,295만 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조선비즈, 9.14일, 원소스 OMDIA)
  -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러·우 전쟁 장기화 및 중국 도시 봉쇄 등에 따른 공급 차질 문제가 빚어지면서 성장세를 지속해오던 OLED TV 시장(125.6만 대,  $\Delta 18.1\%$ )마저도 8분기 만에 하락 전환해 눈길(헤럴드경제, 8.24일, 원소스 OMDIA)
  - 전방 시장의 기록적인 부진에 이어 LCD 패널 가격 하락세도 장기간 지속되면서 올해 대형 패널 시장(766억 달러,  $\Delta 18.5\%$ )은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OMDIA, '22.6월)
  - (중소형 시장) 반면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과 더불어 차량용 계기판, AR·VR기기로 OLED 패널 수요처가 확대되면서 중소형 OLED 시장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 (TV 시장) '22년 글로벌 TV 시장(2억 879만 대,  $\Delta 2.2\%$ )은 2년 연속 감소 전망. 다만 40인치 대 OLED TV 시장의 빠른 성장에 눈길(매일경제, 9.9일, 원소스 OMDIA)
  - 소비자들의 초대형 TV 선호 흐름 속에서 '20년 처음으로 등장한 40인치 대 OLED TV는 당시 시장 규모가 16.7만 대에 불과했으나 점차 세컨드·게이밍 수요로 주목받으며 '22.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81.3% 증가하는 실적 기록(조선비즈, 8.23일, 원소스 OMDIA)
  - 게다가 올해 LG전자가 기존 48인치에 이어 42인치 제품을 추가 출시하며 중형급 OLED TV 시장 확대를 적극 공략함에 따라 '22년 40인치 대 OLED TV 시장은 115만 대(21.2%↑) 규모로 큰 폭 성장할 전망

그림 1-4 | 글로벌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및 LCD 패널 가격 추이



자료 : OMDIA, 2022.6. / 2022.8.



## □ 韓·中 디스플레이 패권 다툼이 OLED 시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韓은 OLED 시장 내 입지 강화에 주력

- 중국은 LCD에 이어 OLED 시장에서도 거센 추격을 가속, 패널 시장 내 경쟁 전선 확대
  -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기반으로 LCD 패널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및 저가 공세를 펼친 중국(매출액 기준, 41.5%)은 마침내 '21년 패널 시장에서 1위를 차지(KDIA, OMDIA)
  - 반면 한국(33.2%)은 '0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밀려 2위를 기록하였으며 나아가 중국 업체의 LCD → OLED 전환 투자 확대 행보 등이 더해지면서 점진적인 시장 내 위상 약화가 우려
    - ※ 中 BOE, CSOT, 티엔마 등이 국내 업체가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중소형 OLED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중소형 OLED 시장 아성에 도전. 또한 현재 LG디스플레이가 독점하고 있는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도 BOE가 '24년 진입을 예고하는 등 추격에 가속
  - 올해도 글로벌 패널 시장 점유율은 중국(43%)이 우위를 차지하며 1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점유율은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조선비즈, 9.13일, 원소스 OMDIA)
  - 일각에서는 중국의 중소형 OLED 생산 능력이 '24년부터 한국을 앞설 것이라 전망하며 국내 업체의 디스플레이 시장 패권 장악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을 촉구
- 국내 업체는 차세대 OLED 기술 우위 및 패널 생산 역량 증대 등으로 OLED 시장 내 주도권 강화에 총력
  - 국내 업체는 중국 업체에 이미 내어준 LCD 패널 시장을 빠르게 탈출하여 성장성이 유망한 OLED로의 사업 재편에 집중. 대형은 물론 AR·VR기기 등 IT기기의 다양화에 따라 중소형 시장도 주목
  -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패널 선도 업체인 동 사는 '24년 가동을 목표로 8세대 IT용 OLED 생산라인 증설 투자를 예고. 기존 아산 A3 유희라인과 신설라인을 활용할 예정(8.24일)
  - 또한 '21.11월 양산을 시작한 자사의 대형 QD-OLED 패널 생산 수율도 공정 개선 등으로 반년 만에 85%까지 개선하였으며 '22년 말까지 월 4만 대 수준으로 생산 능력도 향상시킬 방침
  - 특히 '23년부터 기존 55·65인치의 패널 라인업에 49인치, 77인치 패널 생산을 추가하는 등 QD-OLED 라인업 확대를 예고하며 대형·중소형 OLED 시장 주도권 강화를 위한 행보 지속
    - ※ 한편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용 패널 공급 물량이 이전 계약 대비 1,000만 대가 추가돼 눈길. 후발업체의 LTPO OLED 패널 초기 생산 지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애플 공급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
  - (LG디스플레이) 90% 이상의 점유율로 차량용 OLED 시장을 이끌고 있는 동 사는 적(R)·녹(G)·청(B) 발광 소자를 여러 층으로 쌓는 OLED 신기술 탠덤(Tandem)을 차량용에 적용하여 밝기·수명·휘도를 한층 더 개선. 경쟁력 있는 OLED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소형 OLED 시장 입지 강화에 전력투구
    - ※ 한편 애플의 '아이폰14' 프로맥스에 탑재될 패널 샘플에서 박막 포장, 전면 카메라 상단 구멍에 문제가 발견돼 생산 과정의 일부를 교체하며 생산 일정이 다소 지연. '22.10월 초부터 본격 생산될 전망

-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산업 육성 및 기술 보호를 위한 법안 도입을 요구
  - '22.3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차세대 기술 보호 및 우수 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OLED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요구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
  - 제안서가 선정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인허가 기간 단축,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세제 혜택 등 전망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심각한 국내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며 독보적인 디스플레이 기술 보호도 강화하여 중국의 빠른 추격 기세에 제동을 걸 방침

## 2) 수출 동향

### □ '22.8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 반락 등으로 5.3% 감소한 20.9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방 산업 수요 위축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 곡선
  - (LCD 패널 : 5.4억 달러, 12.5%↑) LCD 패널 단가 하락, 고인플레이션 여파 등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의 프리미엄 TV 판매 호조 등으로 3개월 만에 반등
  - (OLED 패널 : 12.6억 달러, △10.0%)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스마트폰 소비력 등이 위축되면서 2개월 만에 반락하였으나 IT기기·차량용 등의 수요는 지속되면서 12억 달러대를 유지
  - (부분품 : 2.9억 달러, △11.5%) 편광판(1.9억 달러, △22.3%)과 BLU(△42.6%) 수출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3억 달러대를 하회
- **(지역별)** 멕시코·헝가리·인도 등의 수출은 급등한 반면 베트남·중국(홍콩 포함) 등은 하락
  - 베트남(11.0억 달러, △6.2%)은 OLED 패널(10.5억 달러, △3.2%) 수출 반락, 부분품 수출(0.2억 달러, △28.1%)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8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중국(홍콩 포함, 6.9억 달러, △23.6%)은 주요 도시 봉쇄 조치 등으로 LCD 패널(3.2억 달러, △14.2%), OLED 패널(1.6억 달러, △48.1%), 부분품(2.1억 달러, △5.1%) 등 전 품목 수출 하락이 3개월간 지속
  - 멕시코(1.3억 달러, 314.9%↑)는 LCD 패널(1.1억 달러, 1,174.1%↑)과 OLED 수출(0.1억 달러, 865.3%↑)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세 자릿수 성장 기록
    - ※ OLED 패널 수출은 '21.11월 국내 업체의 QD-OLED 패널 양산을 시작으로 수출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
  - 마찬가지로 헝가리(0.5억 달러, 659.7%↑)도 OLED 패널 수출(0.3억 달러, 전월 대비 23.2%↑) 급등과 LCD 패널 수출 증가(0.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8,095.4%↑) 등으로 2개월 연속 오름세



표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8	9	10	11	12	'22.1	2	3	4	5	6	7	8
패널	22.1 (42.3)	24.4 (35.0)	22.4 (6.3)	24.3 (14.7)	24.7 (13.1)	23.5 (13.3)	22.5 (39.3)	24.5 (45.3)	20.5 (22.5)	18.2 (2.4)	17.8 (△8.4)	20.0 (△4.7)	20.9 (△5.3)
LCD	4.8 (△12.3)	4.9 (△6.2)	5.1 (△6.8)	5.5 (3.2)	5.6 (4.6)	5.4 (1.8)	5.2 (15.8)	6.1 (24.2)	5.2 (5.2)	4.9 (3.0)	4.3 (△9.0)	4.8 (△8.6)	5.4 (12.5)
OLED	14.0 (117.7)	16.2 (70.6)	13.9 (14.5)	15.3 (19.5)	15.3 (14.1)	14.0 (14.4)	13.1 (56.3)	14.2 (69.0)	11.7 (38.8)	9.9 (2.1)	10.9 (△2.4)	12.5 (2.7)	12.6 (△10.0)
부분품	3.3 (△8.7)	3.3 (△1.6)	3.3 (△2.0)	3.5 (14.8)	3.7 (23.6)	4.1 (28.0)	4.2 (27.9)	4.2 (18.1)	3.6 (6.7)	3.4 (2.4)	2.6 (△26.3)	2.7 (△24.2)	2.9 (△11.5)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5.3	23.8	50.8	베트남	11.0	-6.2	52.7	84.4	19.5	50.2
2	중국	102.1	15.4	41.4	중국	6.8	-21.8	32.3	64.7	-4.6	38.5
3	홍콩	5.1	31.9	2.1	멕시코	1.3	314.9	6.2	5.1	206.0	3.0
4	멕시코	2.6	26.7	1.0	헝가리	0.5	659.7	2.3	1.9	232.5	1.2
5	미국	2.2	0.6	0.9	인도	0.2	229.2	1.2	2.0	145.6	1.2
6	인도	1.1	50.4	0.5	홍콩	0.2	-58.5	0.9	3.1	10.5	1.9
7	일본	1.0	-22.7	0.4	슬로바키아	0.2	531.6	0.9	0.5	151.9	0.3
8	헝가리	0.8	42.1	0.3	일본	0.1	57.0	0.7	1.1	83.5	0.6
9	대만	0.6	-7.8	0.3	미국	0.1	-42.5	0.6	1.2	-27.2	0.7
10	폴란드	0.6	-15.6	0.2	이집트	0.1	38.8	0.5	0.5	59.0	0.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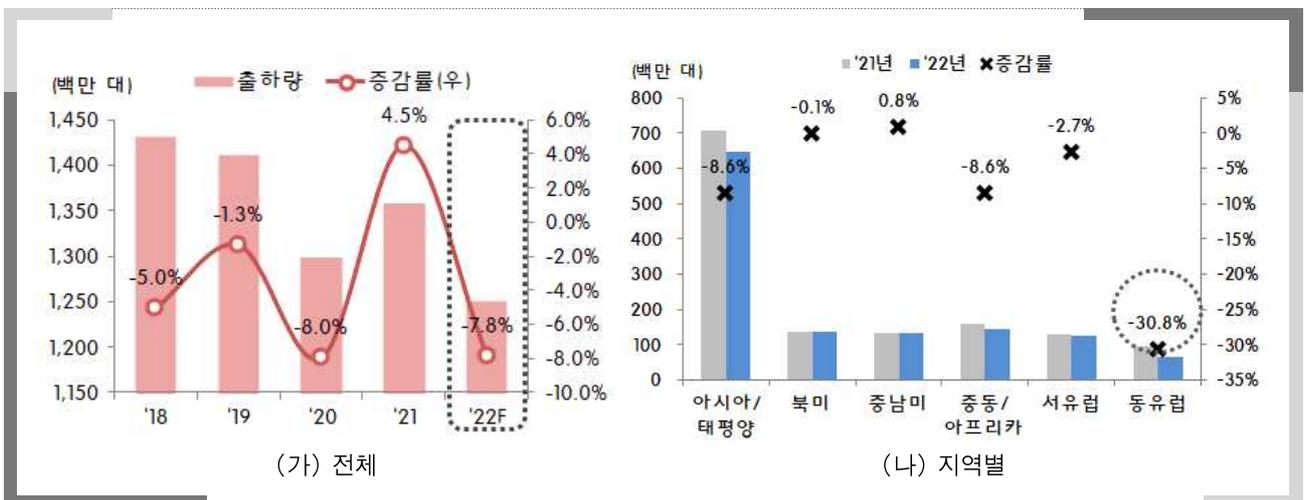
## 4 휴대폰

### 1) 수출 환경

#### □ 부진이 예상되는 '22년 스마트폰 시장, 중남미를 제외한 글로벌 전역에서 하락 예측

- **(글로벌)**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지정학적인 요인 지속 및 경기 침체 전망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7.8% 줄어든 12억 5,200만 대로 반락할 전망(SA, '22.9월)
  - 중국 정부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한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 현지 소비심리 위축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여타국 통화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연간 글로벌 출하량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 SA는 '22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을 '22.3월 전망치 기준 13억 8,000만 대로 예상했으나 6월 13억 140만 대로 하향 조정했으며 9월에 다시 12억 5,200만 대로 추가 하향 조정(4,940만 대 감소)
  - 다만 '23년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23년 스마트폰 시장은 2.7% 성장 기대
- **(지역별)** 중남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하 정체 및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러·우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동유럽은 급감할 전망(SA, '22.9월)
  - 동유럽(△30.8%)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지역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
  - 아시아/태평양(△8.6%)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의 영향과 일본·한국·인도 등의 경기 위축 및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으로, 중동/아프리카(△8.6%)는 식량 공급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각각 8% 중반대의 하락세가 전망

그림 1-6 | 전체 및 지역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망



자료 : SA, 2022.9.



- 북미( $\Delta 0.1\%$ )·서유럽( $\Delta 2.7\%$ ) 등 선진국은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공급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하락이 예상되나 감소 정도는 타 지역 대비 낮을 것으로 예측
- 지정학적 이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남미( $0.8\% \uparrow$ )는 글로벌 지역 중 유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만 성장률은 중전 전망('22.6월  $2.8\% \uparrow$ ) 대비  $2\%p$  하향 조정

## □ 애플의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등으로 삼성전자 등과 하반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 **(애플)**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를 출시했으며 출고가 유지 전략 등으로 시장 수요를 유인
  - 애플은 '22.9.7일 '아이폰14'·'아이폰14 플러스'·'아이폰14 프로'·'아이폰14 프로맥스' 등 '아이폰14' 시리즈 4종을 공개했으며 9.16일 기본·프로·프로맥스, 10.7일 플러스 모델이 공식 출시될 예정
  - '아이폰14' 시리즈는 상위 모델(프로·프로맥스)과 하위 모델(기본·플러스) 간 성능 및 디자인에 차별. 상위 모델의 경우 상단 카메라 부분의 '노치' 디자인이 '편치홀'로 변경됐으며 기존 대비 성능이 40% 개선된 신형 AP 'A16 바이오닉', 4,800만 화소 카메라 등이 탑재돼 하위 모델과 차별
  - 한편 '아이폰14' 시리즈 출고가가 약 100달러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애플이 전작과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 위축된 스마트폰 시장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 ※ 다만 최근 달러 강세로 북미 외 지역에서는 실제 가격이 약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시장에서는 '22년 '아이폰14' 시리즈 출하량이 약 9,000만 대로 예상되며 특히 성능 및 디자인이 개선된 상위 모델 비중이 6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경쟁 업체)** 삼성전자가 폴더블 제품을 先출시하며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는 가운데 샤오미·화웨이 등 중화권 업체도 신제품을 출시하며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경쟁에 가세
  - (삼성전자) 힌지 주름, 제품 부피, 배터리 용량 등 전작 대비 성능을 개선한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4'·'갤럭시Z 플립4' 등을 한국·미국·유럽·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8.26일)
    - ※ 특히 사전 예약 기간('22.8.16~8.22일) 인도에서 총 1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등 흥행 조짐이 관측되는 가운데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의 판매가 전작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샤오미) 삼성전자 신제품 공개('22.8.10일) 다음날인 '22.8.11일 차세대 폴더블폰 '믹스 폴드2'를 공개, '22.8.16일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 '믹스 폴드2'는 두께 11.2mm로 폴더블폰 중 가장 얇은 두께, 독일 카메라 업체 '라이카'와의 협력을 통한 고급 카메라 기술력 등이 주요 특징으로 주목
    - ※ 다만 '믹스 폴드2'는 화면 펼침 각도가 90도 이상이 되면 원하는 각도로 고정되지 않아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4'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화웨이) '아이폰14' 공개 전날인 '22.9.6일 '메이트50'·'메이트50 프로' 등 '메이트50' 시리즈를 발표. '메이트50' 시리즈는 지난해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2년 만에 출시된 화웨이의 최상위 라인업으로 세계 최초로 통신 연결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
    - ※ 다만 5G가 아닌 LTE 지원용 AP 및 자체 OS 흥명이 탑재돼 글로벌 경쟁력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

## 그림 1-7 하반기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신제품



자료 : 각 사

### □ 'Made in India 스마트폰' 증가 일로, 주요 업체들의 인도 생산 확대 기조도 지속

- '22.2분기에도 인도 내 스마트폰 생산량이 증가한 가운데 공급망 위험 완화를 위한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인도 생산 설비 투자 및 이전 움직임이 지속 확대되는 양상
  - 인도 현지 기존 공장뿐 아니라 신규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22.2분기 인도에서 제조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6% 증가한 4,400만 대를 기록(카운터포인트리서치, '22.9월)
    - ※ '22.2분기 인도산 스마트폰 중 오포 생산량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삼성전자(21.8%), 비보(14%) 등 순. EMS<sup>2)</sup> 업체인 바라트 FIH(샤오미 제품 생산), 디슨(삼성전자 제품 생산) 등도 5위권 내 랭크
  - (삼성전자) 생산설비의 특정 국가 편중에 따른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26년까지 주요 생산 거점별 생산 비중을 30% 이하로 조정기로 결정. 최근 갤럭시S 시리즈 생산 비중을 늘리며 인도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협력사도 생산기지를 인도로 옮겨 대응
    - ※ '2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지역별 생산 비중은 베트남 50~60%, 인도 20~30%, 브라질 10~15%, 구미 3~5%, 인도네시아 3~5% 등(ZDNetKorea, '22.9.19일)
  - (애플)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애플 협력사인 폭스콘·위스트론 등은 인도에 아이폰 제조공장을 건설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탁생산 물량을 인도로 이전. '22.11월에는 '아이폰14' 시리즈도 인도에서 생산할 예정
    - ※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맥북 등 생산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으나 인도 생산이 증가하면서 인도산 애플 제품 생산 비중이 '21년 3.1% → '22년 6~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카운터포인트리서치)
  - (구글(알파벳)) 중국 주요 도시 봉쇄로 인한 생산 중단과 미·중 간 긴장 고조를 감안,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사 스마트폰 픽셀의 연간 생산량 중 10~20%(50만~100만 대)를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 (중국 업체) 샤오미는 '21.3월 이후 중국 BYD, 인도 DBG 등과 협력해 인도 물량의 99%를 현지에서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오포도 인도 제조 설비 증설 투자 계획을 발표. 다만 최근 인도 정부의 중국 기업 규제 강화로 이집트 등 새로운 지역 등으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
    - ※ '22.7.14일 인도 정부는 오포 인도 법인에 439억 루피(약 7,200억 원)의 추징금을 조세포탈 혐의로 부과

2) 위탁생산업체(EMS)는 주문자가 제품 설계, 부품 조달 등 사실상 전 과정을 담당하는 주문자위탁생산(ODM)과는 달리 부품 조립과 최종 점검을 완제품 업체가 대신해 주는 방식

## 2) 수출 동향

### □ '22.8월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 감소로 하락했으나 부분품 성장으로 감소세는 둔화

- **(품목별)** 시장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생산량 부품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하락세는 완화('22.7월  $\Delta 6.1\%$  → 8월  $\Delta 3.3\%$ )
  - (휴대폰 완제품 : 2.6억 달러,  $\Delta 34.7\%$ ) 인도 등 시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신제품 출시('22.8.26일 '갤럭시Z 플립4', '갤럭시Z 폴드4' 출시)에 따른 수요는 견조했으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며 수출은 2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휴대폰 부분품 : 8.8억 달러,  $12.3\% \uparrow$ )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생산 확대 등에 따른 3D 센싱 모듈,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로 '21.7월 이후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6.5억 달러,  $49.7\% \uparrow$ ), 베트남(1.5억 달러,  $\Delta 45.2\%$ ), 인도(0.1억 달러,  $48.7\% \uparrow$ )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인도 등은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베트남·미국 등은 감소
  - 중국(홍콩 포함, 6.6억 달러,  $43.3\% \uparrow$ )은 애플 및 현지 업체向 부품 공급 증가에 따른 카메라 모듈, 3D 센싱 모듈 등 부분품( $49.7\% \uparrow$ )이 선전하면서 '20.10월 이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 베트남(1.5억 달러,  $\Delta 44.8\%$ )은 완제품( $63.3\% \uparrow$ )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생산 라인 일부 국내 이전 등에 따른 생산 축소 등으로 카메라 모듈, PCB, 커버(프레임, 힌지 등), RFIC 등 관련 부분품( $\Delta 45.2\%$ )이 하락하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 \*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을 고려해 '22.2월 베트남 생산 라인 일부를 구미로 이전
  - 인도(1.3억 달러,  $453.5\% \uparrow$ )는 국내 기업의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완제품( $543.3\% \uparrow$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5개월 연속 세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를 달성
    - \* 삼성전자는 '22.8.16~8.22일 인도에서 '갤럭시Z 플립4'·'갤럭시Z 폴드4' 사전예약을 시작했으며 총 10만 대의 판매 기록을 달성하는 등 삼성전자 폴더블폰 인도 판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흥행
  - 미국(0.6억 달러,  $\Delta 73.1\%$ )은 현지 수요 위축과 더불어 경쟁 업체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등으로 완제품( $\Delta 85.6\%$ )이 부진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표 1-7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8	9	10	11	12	'22.1	2	3	4	5	6	7	8
휴대 단말기	11.8 (67.5)	12.1 (19.3)	13.8 (17.3)	14.7 (16.9)	13.4 (4.7)	11.3 ( $\Delta 4.8$ )	10.9 (5.6)	16.3 (48.1)	13.8 (11.7)	11.2 (7.5)	9.6 (10.8)	9.0 ( $\Delta 6.1$ )	11.4 ( $\Delta 3.3$ )
완제품	3.9 (99.2)	3.3 (0.8)	4.0 (8.9)	4.3 (6.4)	3.7 (18.4)	1.3 ( $\Delta 67.2$ )	2.7 ( $\Delta 37.0$ )	7.7 (75.2)	5.7 ( $\Delta 0.6$ )	4.2 (2.0)	4.6 (18.3)	3.0 ( $\Delta 22.2$ )	2.6 ( $\Delta 34.7$ )
부분품	7.9 (55.2)	8.8 (28.1)	9.7 (21.2)	10.4 (21.8)	9.7 (0.2)	10.1 (24.5)	8.1 (36.5)	8.7 (30.3)	8.1 (22.2)	6.9 (11.1)	5.0 (4.7)	6.0 (4.7)	8.8 (12.3)

자료 : IITP, KTSPi

그림 1-8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8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1	중국	49.5	70.2	35.4	중국	6.5	50.9	57.3	41.2	62.4	44.1
2	베트남	29.4	-7.9	21.0	베트남	1.5	-44.8	13.2	13.2	-30.1	14.1
3	미국	24.5	-2.0	17.5	인도	1.3	453.5	11.5	2.6	194.2	2.8
4	영국	5.3	36.6	3.8	미국	0.6	-73.1	5.4	8.3	-58.1	8.8
5	독일	4.8	76.4	3.4	독일	0.3	-13.4	2.2	4.7	61.2	5.0
6	홍콩	3.8	0.1	2.7	일본	0.2	70.2	1.6	1.2	6.8	1.3
7	인도	3.3	192.3	2.4	오스트리아	0.2	88.9	1.5	3.8	257.8	4.0
8	일본	2.2	9.0	1.6	캐나다	0.1	-45.0	1.3	1.7	45.1	1.8
9	프랑스	2.0	149.6	1.4	영국	0.1	-75.1	0.8	4.1	21.9	4.4
10	오스트리아	1.9	467.0	1.4	대만	0.1	72.3	0.8	0.8	280.2	0.9

자료 : IITP, KTSPi



## 1) 수출 환경

### □ '22년 PC 시장, 상반기 이어 하반기도 경기 침체,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 (시장 전망) '22년 PC 시장(3억 530만 대, △12.8%), 두 자릿수 역성장 전망(IDC, '22.9월)
  - 글로벌 PC 시장은 원격 근무·교육용 등의 소비자 수요가 감소한 데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압박 등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22년 큰 폭의 하락 전망
  - 특히 '22.2분기 PC 출하량은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한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수요 위축과 동시에 중국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공급 문제, 인플레이션에 의한 수요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3% 감소한 7,130만 대 수준으로 감소
  - 하반기에도 비대면 문화 축소, 경제적 불안정 확대, 물류 문제 심화 등으로 내림세가 지속될 전망
- (업체 동향) PC 시장 둔화 속에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연말 특수를 겨냥
  - (Lenovo) '테크 라이프 2022(9.1일)'에서 연말 출시 예정인 폴더블 PC '씽크패드 X1 폴드 2세대'를 공개. '20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PC를 상용화한 이래로 두 번째이며 1세대 제품 대비 성능도 개선
    - ※ 이전 버전 대비 베젤은 10mm 이하로 줄었고 OLED 디스플레이도 22% 더 확대되었으며 특히 Lakefield 칩을 탑재한 이전과 달리 인텔의 12세대 i7 칩을 채용한 점 등이 특징
  - 동 제품은 펼치면 16.3인치, 접거나 노트북 모드로 펼치면 12인치 크기이며 디스플레이 하단에 자석으로 키보드 장착도 가능. 키보드에는 햅틱 터치패드, 지문 인식 등을 갖추고 있어 휴대성·편리성이 높아 눈길
  - 또한 뒷면 커버, 전원 공급장치 등에 재활용 플라스틱(페트병 등)을 사용하였고 외부 포장도 대나무·사탕수수 소재를 적용해 친환경적 요소도 반영한 점이 특징
  - (Acer) 인텔 12세대 i7 CPU,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Ti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17인치 '니트로 5 AN517-55'를 출시해 눈길(8.23일)
  - QHD 화질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최대 3m/s 응답속도와 165Hz 고주사율을 지원해 그래픽 작업과 더불어 고용량 동영상 편집 등에도 유용할 것으로 관측
  - (MSI) 독일에서 개최된 'IFA 2022(9.2~9.6일)' 행사에서 인텔 12세대 CPU 등을 탑재한 노트북 신제품 3종('GT77', 'GE67 HX', '프레스티지 16')을 공개
    - 특히 'GE67 HX'는 세계 최초로 QHD 화질의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패널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점에 주목. 선명한 색감과 화질을 제공하며 게이밍 프리미엄 수요를 겨냥
  - (Apple) '22.10월 M2 프로 칩을 적용한 새로운 '맥북 프로'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

**그림 1-9 |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신제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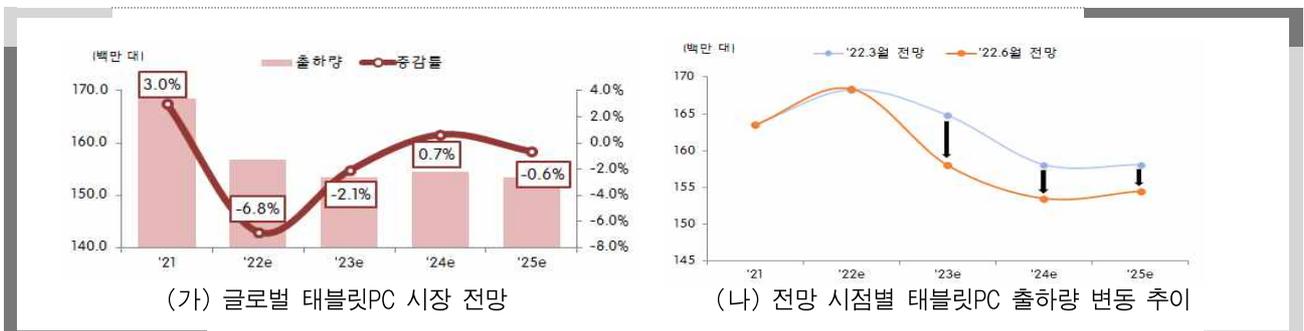


자료 : IDC, 2022.9. / 언론 자료 인용

**□ (태블릿PC) 코로나19 완화,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하락 전환 예상**

- (시장 전망) '22년 태블릿PC 시장은 코로나 특수 종료 등으로 다시 하락세에 진입할 전망
  - 비대면 교육용 등으로 2년간 반짝 성장세를 누렸던 태블릿PC 시장은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에 따라 수요가 급속히 냉랭해지면서 '22년(1억 5,680만 대, △6.8%) 시장은 하락 전망
  - 게다가 공급망 문제 심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3월 전망 대비 감소폭이 4.1%p 확대. 태블릿PC 시장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
- (업체 동향) 고성능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신제품을 공개하며 보급형·프리미엄 시장을 모두 공략
  - (Apple) '아이패드 기본'·'아이패드 프로' 10세대 신제품이 '22.10월에 맥북 프로와 함께 공개될 예정
  - (Lenovo) '테크 라이프2022' 행사에서 프리미엄 태블릿 '탭 P11·P11 프로 2세대'를 공개. 프로 제품은 600니트의 밝기와 120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콘텐츠 감상 및 게임에 적합
    - ※ 또한 P11 제품은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성능이 50% 개선되었으며 와이파이 6E 등의 기능도 지원
  - (화웨이) 'IFA 2022'에서 태블릿PC 신제품 '메이트패드 프로'를 공개('22.9.30일 출시 예정).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며 11인치 OLED 패널이 탑재된 점이 특징

**그림 1-10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전망 및 전망 시점별 출하량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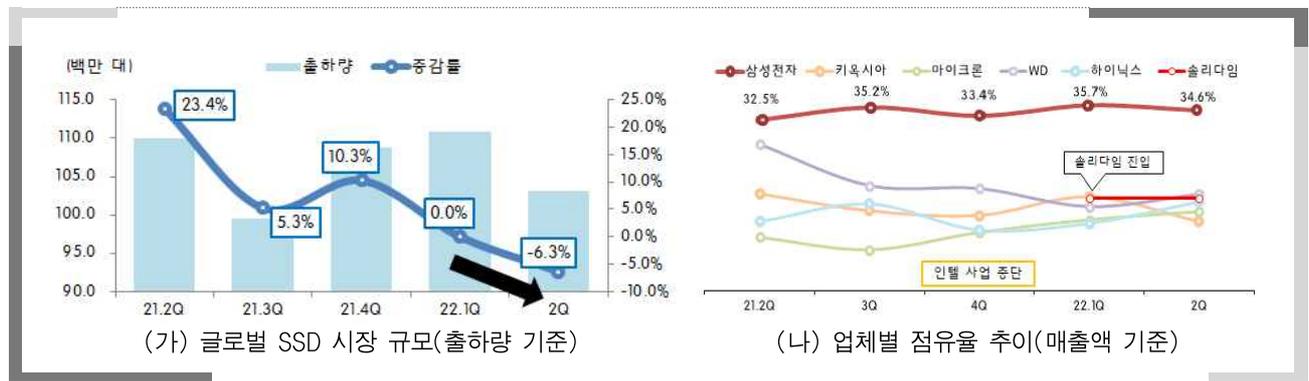


자료 : IDC, 2022.6.

## □ (SSD) 소비자용 수요 부진 등으로 올 2분기 SSD 출하량은 이례적인 하락 기록

- (시장 규모) '22.2분기 SSD 출하량은 반락한 반면 매출액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
  - 러·우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전방 노트북·PC 수요가 후퇴하면서 소비자용 SSD 출하량(8,315만 대, △11.7%)과 매출액(44.1억 달러, △8.9%)은 모두 감소 진입
  - 반면 ICT 신기술 확산에 따른 데이터 사용 증가로 데이터 센터向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용 SSD 출하량(1,695만 대, 34.3%↑), 매출액(69.8억 달러, 69.3%↑)은 동반 성장
  - 이러한 기업용 수요에 힘입어 2분기 SSD 매출액(114.9억 달러, 27.0%↑)은 4분기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출하량(1억 311만 대, △6.3%)은 소비자용 SSD 수요 부진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례적인 감소를 기록해 눈길
- (경쟁 현황 및 업체 동향) 인텔의 사업 중단 및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등으로 순위 변동이 발생
  - 삼성전자(37.1억 달러, 35.0%↑)는 기업용 SSD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34.6%의 점유율로 1위를 수성. 한편 8.25일 V낸드 기술을 적용해 이전 제품 대비 성능을 대폭 개선한 소비자용 '990 PRO 시리즈'를 공개('22.10월 출시 예정)
    - ※ 기존 제품 대비 임의 쓰기 속도는 55%, 임의 읽기 속도는 40%, 전력 효율도 최대 50% 개선되었으며 고성능 게임, 4K·8K 고화질 영상, 빅데이터 분석 등 고용량 데이터 처리 작업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이라 소개. 다만 업계에서 기대했던 PCIe 5.0이 아닌 4.0 규격을 적용해 눈길
  - WD(10.7억 달러, △6.3%)는 매출액이 여전히 감소세이나 인텔 사업 중단, 공정 수율 회복 등으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전 분기 대비 2단계 상승한 2위에 랭크
  - '22.1분기 SSD 시장에 본격 진입한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10.2억 달러, 전 분기 대비 10.6%↑)은 9.1%를 차지하며 3위를 유지. 이어 SK하이닉스(10.2억 달러, 49.8%↑), 마이크론(9.4억 달러, 59.9%↑)이 각각 4위(8.8%), 5위(8.2%)를 차지

그림 1-11 | 글로벌 SSD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IDC, 2022.8.

## 2) 수출 동향

### □ '22.8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SSD 수요 감소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

- (품목별) 고인플레이션으로 IT기기 소비력이 약화되면서 SSD 수출도 큰 폭 둔화. 전체 수출은 25.3% 하락한 12.6억 달러 형성
  - (컴퓨터 : 0.7억 달러, △60.4%)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컴퓨터 부품(0.4억 달러, △75.6%) 수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노트북(0.1억 달러, △33.1%) 수출마저 반락. 컴퓨터 수출 낙폭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
  - (주변기기 : 11.9억 달러, △21.1%) 프린터·모니터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나 SSD 수출(9.7억 달러, △28.2%)은 소비자용 수요 감소 등으로 2개월 연속 내림세
- (지역별) 주요 교역국인 미국·중국(홍콩포함) 등을 중심으로 수출 역성장 기록
  - 미국(5.0억 달러, △6.8%)은 컴퓨터 수출(0.1억 달러, 3.8%↑) 반등에도 불구하고 SSD 수출(4.2억 달러, △12.4%)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개월 연속 감소
  - 중국(홍콩 포함, 3.7억 달러, △42.7%)은 상하이 봉쇄, 일시적 전력 사용 제한 조치 등으로 공장 정상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컴퓨터(0.2억 달러, △83.0%), SSD 수출(3.1억 달러, △34.7%)이 큰 폭 하락하며 4개월 연속 내림세

**표 1-9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8	9	10	11	12	'22.1	2	3	4	5	6	7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9 (40.3)	19.2 (44.0)	14.8 (15.0)	17.8 (77.7)	16.6 (59.2)	15.3 (54.3)	15.8 (47.8)	17.9 (36.9)	17.6 (57.7)	17.7 (32.8)	16.9 (13.4)	12.1 (△21.9)	12.6 (△25.3)
컴퓨터	1.8 (△9.3)	2.0 (13.7)	2.1 (4.5)	2.2 (24.8)	2.4 (19.8)	1.0 (△40.0)	0.8 (△49.5)	0.7 (△61.4)	0.9 (△44.8)	0.9 (△53.1)	0.9 (△51.3)	0.9 (△58.0)	0.7 (△60.4)
부품	1.5 (△6.1)	1.6 (5.3)	1.7 (3.9)	1.8 (22.3)	1.8 (9.7)	0.6 (△59.4)	0.4 (△69.0)	0.4 (△74.8)	0.5 (△62.6)	0.5 (△68.4)	0.5 (△66.8)	0.5 (△71.3)	0.4 (△75.6)
주변기기	15.1 (50.1)	17.3 (48.5)	12.8 (16.9)	15.6 (89.0)	14.2 (68.5)	14.4 (72.7)	15.0 (63.9)	17.2 (52.8)	16.7 (75.3)	16.8 (47.5)	16.0 (22.8)	11.2 (△16.3)	11.9 (△21.1)
보조기 장치	13.6 (61.2)	15.3 (49.6)	10.9 (14.8)	13.9 (104.8)	12.3 (79.0)	12.1 (71.1)	13.2 (69.2)	14.2 (54.9)	14.4 (91.2)	14.1 (45.7)	13.5 (21.0)	8.7 (△22.2)	9.8 (△28.0)
프린터	0.3 (△17.4)	0.3 (8.9)	0.3 (△20.7)	0.3 (3.4)	0.4 (8.4)	0.4 (15.5)	0.3 (0.5)	0.4 (17.3)	0.4 (△1.8)	0.4 (3.4)	0.4 (△8.2)	0.4 (15.9)	0.4 (63.9)
모니터	0.6 (47.4)	0.7 (91.6)	0.7 (65.7)	0.8 (78.7)	0.9 (83.7)	1.3 (191.1)	1.0 (111.9)	1.2 (119.2)	1.1 (125.8)	1.1 (101.9)	1.0 (72.2)	1.1 (51.6)	1.0 (64.2)

자료 : IITP, KTSPI



### 그림 1-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표 1-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1	미국	56.8	25.3	32.7	미국	5.0	-6.8	39.3	45.9	38.0	36.4	
2	중국	44.8	8.9	25.8	중국	2.7	-33.2	21.5	26.4	-5.8	21.0	
3	홍콩	19.1	52.4	11.0	홍콩	0.9	-59.4	7.4	11.3	4.8	9.0	
4	일본	5.6	11.5	3.2	일본	0.4	-29.0	3.3	5.4	34.6	4.3	
5	대만	4.9	52.1	2.8	체코	0.4	19.1	3.2	2.2	37.0	1.7	
6	네덜란드	4.7	58.3	2.7	네덜란드	0.3	61.9	2.6	5.7	176.2	4.6	
7	멕시코	4.7	35.4	2.7	폴란드	0.3	4.7	2.5	2.4	66.7	1.9	
8	싱가포르	4.3	106.0	2.5	싱가포르	0.3	-65.5	2.4	3.3	14.8	2.6	
9	아일랜드	4.2	94.9	2.4	베트남	0.3	356.1	2.3	2.8	191.9	2.2	
10	독일	2.8	7.3	1.6	대만	0.3	-28.2	2.3	3.2	-1.2	2.6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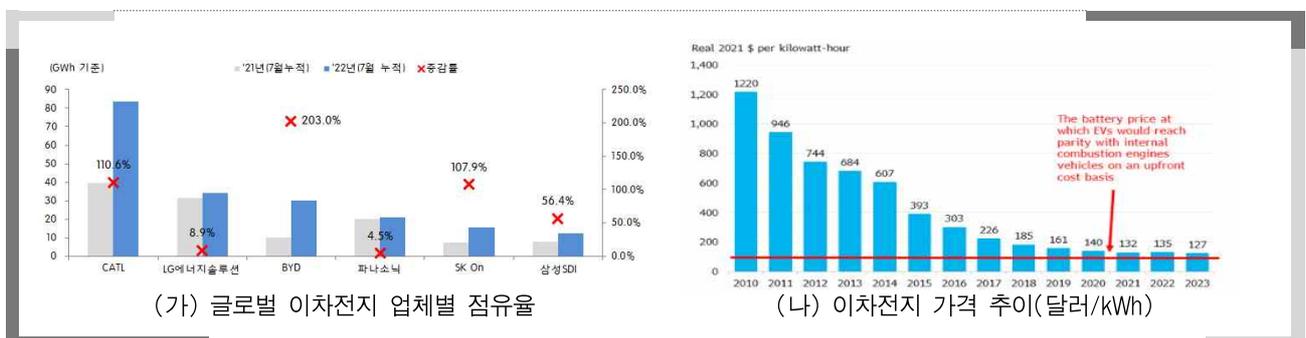
## 6 이차전지

### 1) 수출 환경

#### □ 친환경 정책 시행 등으로 ESS용 시장은 성장 전망, 전기차용 시장도 양호한 흐름 지속

- (시장 전망)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ESS·전기차 등의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 전망
  - (ESS)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도입 등이 확대되면서 가정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 독일의 경우 가정용 ESS 설치 시 투자금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21년부터는 태양광 발전 용량이 30kW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
  - '23년부터 리튬이온 이차전지 가격도 다시 하락 곡선에 진입해 127달러/kWh(△5.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ESS 설비 보급 확대 속도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
    - ※ 다만 올해 이차전지 가격은 라우 전쟁, 중국 봉쇄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
  - 이에 따라 글로벌 가정용 ESS 이차전지 시장은 '22년 44억 달러 → '27년 151억 달러 규모 (CAGR 27.9%↑)로 큰 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MarketsandMarkets, '22.2월)
    - ※ 폐배터리 재사용 방안으로도 ESS 활용이 크게 각광받고 있어 향후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
  -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연이은 전기차 신제품 출시 등으로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22.7월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240.8GWh 규모(76.0%↑)로 고성장 지속(SNE리서치, '22.9월)
- (경쟁 동향) 韓 이차전지 업체들은 고객사의 전기차 모델 판매 증가 등으로 성장을 거듭
  - '22.1~7월 국내 이차전지 3사 점유율(25.9%)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중국 업체(CATL, BYD 등)에 밀려 전년 동기 대비 8.3%p 하락하였으나 전년 대비 성장세는 지속 유지하고 있어 눈길
    - ※ LG에너지솔루션(9.0%↑), SK-on(107.8%↑), 삼성SDI(56.3%↑) 모두 전방 수요 호조 등으로 증가세 실현

그림 1-13 | 글로벌 이차전지 업체별 점유율 및 이차전지 가격 추이



자료 : SNE리서치, 2022.9. / BNEF, 2022.7.



## □ 이차전지 업계가 美의 IRA 대응 방안을 집중 모색중인 가운데 EU도 규제 강화 예고

- 미국은 이차전지 공급망 내 중국산 비중을 낮추고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을 도입. 이에 따라 글로벌 업체들은 美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 ‘우려 국가’의 이차전지 광물이나 부품이 사용된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세액 공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주 골자인 IRA가 시행(8.16일)되면서 글로벌 이차전지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
  -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한차례 보류(’22.6월)했던 애리조나주 이차전지 공장 신설 계획(연간 11GWh)을 IRA 등 환경 급변화에 따라 다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수정 발표
  - 뿐만 아니라 日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협력하여 미국에 40GWh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 공장을 설립키로 합의해 눈길. 현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
    - ※ 한편 국내 업체들은 이차전지 소재 조달처 다변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완전한 탈중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타국에서의 프리미엄 요구 등 우려사항 또한 다분한 것으로 관측
  - (파나소닉) 美 오클라호마에 연간 40~50GWh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 건설할 것이라 발표. 테슬라의 텍사스 생산기지과 인접한 지역으로 IRA 요건 달성 및 완성차 업체 수주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
  - (도요타) 전기차용 이차전지 제조 능력 확대를 위해 미국(3,300억 엔)과 일본(4,000억 엔)에 7,300억 엔을 투자하여 공장 신설을 예고. 생산 시기는 ’24~’26년, 규모는 최대 40GWh 달성을 목표로 제시
  - (테슬라) 중국 의존도 최소화를 위해 텍사스 주에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추진. 주 정부 승인 시 ’22.4분기 착공, ’24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
    - ※ 이외에도 글로벌 업체들은 원자재 분량 확보 및 中 수입 의존 탈피를 위한 폐배터리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어 눈길
  - 한편 美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이차전지 관련 핵심 광물 및 부품 등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세부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해 향후 행보에 예의 주시가 필요
    - ※ 다만 북미 지역 내에서의 전기차 완전 조립 조건은 이미 발효되어 미국 내 완전한 생산라인을 갖추지 않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
- EU도 환경 규제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sup>3)</sup>’ 제도 도입을 예고하며 유럽 시장 내 이차전지 업체 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
  - EU는 ‘순환 경제’의 일종인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위해 이차전지 전 사용 과정을 기록하는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인 ‘배터리 여권’ 제도를 ’26년부터 시행할 것이라 예고
  - 적용 대상은 2kWh 이상의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이차전지이며 재료 원산지, 탄소 배출량 수치, 배터리 내구성, 배터리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의 내용이 ‘배터리 여권’에 기재될 예정

3)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배터리의 생애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전자시스템

- 이러한 행보에 따라 독일·일본·중국 등은 제품 이력 데이터 축적을 위한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배터리 여권 부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한편 글로벌 업체들도 유럽 내 생산 능력 확대에 매진

※ IRA가 자국 생산 및 산업 보호에 초점을 두었다면 EU의 배터리 여권은 환경 규제에 방점을 둔 점이 특징

- 해당 여권을 토대로 EU가 제시한 환경 규제를 충족한 이차전지만이 EU 역내 거래가 가능
  -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25년까지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 코발트·구리·납·니켈의 90%, 리튬의 35% 이상을 ‘재활용 원자재’로 사용해야 하며 '30년 95%, 75% 이상으로 각각 한차례 상향할 방침

- (CATL) 美의 IRA 통과에 따라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린 동 사는 이전에 보류했던 헝가리 데브레첸시 지역에 73.4억 유로를 투입하여 연간 100GWh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연내 착공할 계획

- 이외에도 최근 BMW에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셀 공급 수주에도 성공하며 유럽 시장으로 우회하여 공격적인 행보를 지속하는 모양새

※ '18년 이전까지는 삼성 SDI가 BMW 이차전지를 독점 공급하였으나 중국 업체에 밀려 공급 구도에 변화가 발생

- (삼성SDI) '22.하반기 헝가리 피드 2공장을 가동해 중대형 이차전지 ‘Gen.5’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

- (SK On) 현재 터키(45GWh)와 헝가리(47.3GWh) 등지에 이차전지 공장을 건설 중이며 '25년 유럽 내 생산능력은 최대 92.3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며 유럽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

**표 1-11 | 각 국의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행보**

국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W, 유미코어, 바스프 등 11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차전지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배터리 패스(Battery Pass)’ 프로젝트에 착수('22.4월 820만 유로를 투자)</li> <li>- 이차전지의 탄소배출량 계산, 유해물질 제어, 생애주기 개선 및 비용절감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4월 민간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가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EU 배터리 여권과 호환 가능한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서’를 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여 배터리 재활용 책임·이행 여부를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 우리나라는 타국과 달리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22.5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해 배터리 전 생애주기 이력을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 추진 계획’을 제시해 포석 마련</li> <li>- 다만 생산·재활용 등 EU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플랫폼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의 시급한 마련이 필요</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2) 수출 동향

### □ '22.8월 축전지 수출은 35.8% 증가한 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품목별) 부분품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수출 오름세 등으로 전체 수출은 9억 달러대를 첫 돌파
  - (축전지 : 8.7억 달러, 41.2%↑) 전기차 수요 증가와 더불어 유럽 지역의 에너지 대란 위기 심화 등에 따른 ESS 설치 확대 등으로 종전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 눈길
    - ※ 축전지 수출 Top3(억 달러) : (1위, '22.8월) 8.7, (2위, '22.7월) 8.1, (3위, '22.3월) 7.9
  - (부분품 : 0.7억 달러, △10.7%) 미국(118.5%↑)·헝가리(23.1%↑) 등의 수출은 상승세이나 중국(홍콩 포함, △24.4%)·폴란드(△43.4%) 등의 감소로 7개월 연속 하락세
- (지역별) 주요 수출국인 미국·독일 등은 성장세가 지속, 한편 인도 수출 급등에 눈길
  - 미국(3.9억 달러, 46.6%↑)은 전기차·ESS向 축전지 수요 확대 등으로 축전지(3.8억 달러, 44.6%↑), 부분품(0.2억 달러, 118.5%↑) 수출이 동반 성장하며 27개월 연속 오름세
  - 독일(1.2억 달러, 58.5%↑)은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 호조 등으로 축전지 수출(1.2억 달러, 58.6%↑)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기록
  - 유럽向 핵심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헝가리(0.2억 달러, △30.1%)는 축전지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15개월 연속 고성장세를 지속했으나 '22.8월 기저효과 등으로 주춤하며 반락
  - 인도(0.3억 달러, 2,676.4%↑)는 전기차 신제품向 축전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2개월 연속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수출 상위 5위권 내로 첫 진입해 눈길

표 1-12 | 축전지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8	9	10	11	12	'22.1	2	3	4	5	6	7	8
축전지	6.9 (15.4)	7.2 (15.7)	6.9 (△7.1)	7.3 (8.7)	7.4 (8.0)	7.3 (16.2)	6.9 (10.5)	8.6 (8.7)	8.1 (12.0)	8.3 (14.1)	7.9 (△2.1)	8.8 (12.0)	9.4 (35.8)
축전지	6.2 (19.3)	6.6 (18.7)	6.3 (△5.4)	6.8 (11.4)	6.7 (10.9)	6.6 (17.5)	6.3 (14.0)	7.9 (11.2)	7.4 (14.7)	7.6 (16.3)	7.3 (△1.4)	8.1 (14.8)	8.7 (41.2)
부분품	0.7 (△9.3)	0.6 (△8.1)	0.6 (△23.3)	0.5 (△16.1)	0.6 (△15.3)	0.7 (2.8)	0.6 (△16.2)	0.7 (△16.3)	0.7 (△12.4)	0.7 (△8.7)	0.6 (△14.1)	0.7 (△15.2)	0.7 (△10.7)

자료 : IITP, KTSPI

**그림 1-14 | 축전지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 축전지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27.4	123.9	31.6	미국	3.9	46.6	41.9	25.3	37.2	38.6	
2	독일	9.9	-2.3	11.4	독일	1.2	58.5	12.2	7.0	7.6	10.7	
3	중국	8.5	-24.9	9.8	중국	0.6	-6.4	6.1	4.3	-27.8	6.6	
4	폴란드	5.7	-16.4	6.6	베트남	0.4	33.8	4.0	3.7	52.6	5.7	
5	베트남	3.9	2.2	4.5	인도	0.3	2,676.4	3.4	1.2	547.7	1.8	
6	일본	3.5	5.8	4.0	폴란드	0.3	-38.5	3.3	2.2	-54.3	3.4	
7	헝가리	2.6	90.9	3.0	일본	0.3	17.9	3.3	2.5	14.4	3.8	
8	호주	2.1	41.8	2.4	헝가리	0.2	-30.1	2.6	2.2	80.3	3.3	
9	홍콩	1.8	-37.1	2.0	이탈리아	0.2	423.4	2.5	1.1	85.0	1.7	
10	프랑스	1.6	32.1	1.9	대만	0.2	332.6	1.9	1.1	202.1	1.8	

자료 : IITP, KTSPi



# 7 SW

## 1) 수출 환경

### □ 글로벌 SW 시장은 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증가하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시장 전망) '22년 SW 시장은 패키지SW·IT서비스 동반 성장 등 전년 대비 7.5% 증가한 2조 90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되나 증가율은 전년(13.5%↑) 대비 둔화될 전망(Gartner, '22.7월)
  -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SW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성장 폭은 한 자릿수로 제한될 것으로 예측
  - (IT서비스 : 1조 2,080억 달러, 6.2%↑) 비대면 환경 전환에 따른 서비스형 인프라(I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수요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패키지SW : 8,068억 달러, 9.6%↑)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시스템 인프라 SW를 중심으로 증가하며 10%대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세로 전체 SW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 비대면 환경 전환에 따른 SW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세가 전망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동유럽 지역은 하락세가 예측
  - 중국(15.6%↑)이 가장 빠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남미(11.1%↑), 중동/아프리카(8.3%↑), 아시아/태평양(6.8%↑) 등 신흥 시장도 6%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
  - 일본(△5.7%)을 제외한 북미(11.5%↑) 및 서유럽(3.1%↑) 등 선진 시장에서도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다만 동유럽(△9.7%)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관련 투자가 제한되면서 하락세가 예상

그림 1-15 전 세계 및 지역별 SW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2.7.

## □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양자내성암호,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

- 삼성SDS는 양자내성암호 전환 프로젝트 참여, LG CNS는 AI 기반 교육서비스 공급 확대, SK C&C는 물류 분야에서의 수요 예측 및 발주 서비스 공급 등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들은 신규 사업 역량을 강화

**표 1-14 |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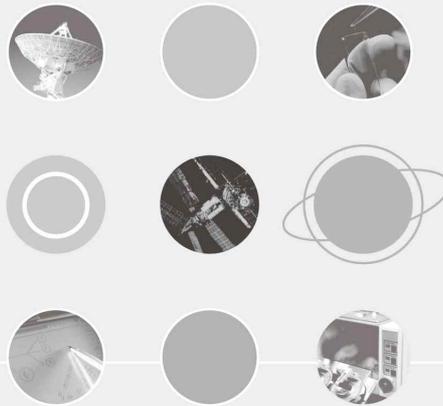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NIST(표준기술연구소) 산하 NCCoE(사이버보안센터)가 주관하는 양자내성암호 전환 프로젝트(Migration to PQC)에 참여('22.8.25일)하면서 보안 분야의 역량을 강화</li> <li>※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기존 암호 체계를 대체할 기술로 개발 비용이 높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양자암호통신과 비교해 개발비가 적고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주목. 특히 하드웨어 간 통신 과정에서 별도의 양자키 분배기가 필요한 양자암호통신과 달리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팅 공격에 저항성을 갖는 암호키를 교환하는 방식</li> <li>-이번 프로젝트는 아마존웹서비스(AWS)·시스코·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13개 기업이 참여해 양자컴퓨터 공격으로 기존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탐지하고, 이를 양자컴퓨터에 내성이 있는 암호체계로 전환해 주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li> <li>-유일한 국내 참여 기업인 삼성SDS는 본 프로젝트에서 자회사 시큐아이와 개발한 암호 알고리즘 탐지 기술을 적용해 네트워크 내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양자컴퓨터 공격에 취약한 기존 암호체계를 자동 탐지하고,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li> <li>-또한 최근 기업의 클라우드 업무 시스템 전환 증가에 따른 고객사 클라우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 기존 암호체계의 양자내성암호 전환도 지원할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 제주도, 경상남도 등 지방교육청과 영어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어교육 서비스 업무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AI 기반 교육 서비스 사업 입지를 확대</li> <li>-교육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실 수업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2.8.17일 제주도교육청, 8.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8.22일 경상남도교육청 등과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교육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li> <li>-이번 협약에 따라 LG CNS는 관련 학교에 영어 학습 서비스 제작 플랫폼인 '스피킹클래스'와 AI 기반 영어회화 학습 서비스인 '시튜터 미션 잉글리시' 등을 무상으로 제공</li> <li>-'스피킹클래스'를 통해 교사들은 교과서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시튜터 미션 잉글리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별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력 격차 완화 및 개인의 수준과 흥미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를 이용한 제품 수요 예측 및 디지털 발주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서비스 활용 분야를 확대</li> <li>-SK C&amp;C는 자사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아큐패브릭 스위트(Accu.Fabric Suite)'를 활용해 친환경 직거래 협동조합인 한살림에 최적화된 제품 수요 예측 및 디지털 발주 서비스 '한살림 오토엠엘(AutoML)'을 제공('22.9.6일)</li> <li>※'아큐패브릭 스위트'에는 AI 모델 자동 생성을 도와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큐인사이트 플러스'와 AI 분석 모델이 포함된 블루프린트형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로봇(DataRobot)' 등이 탑재</li> <li>-'한살림 오토엠엘'을 통해 물품군마다 분석 데이터 세트 생성, 데이터 세트 간 변수 탐색, 변수 간 조합, 분석 모델링 작업 등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한살림 생산자들이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조합원의 수요를 파악해 신선품 유통을 효율화하고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li>-한편 SK C&amp;C는 해당 기업에 맞는 수요 예측 특화 변수를 발굴해 AI 자동 학습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분석 담당자 교육을 운영하는 등 플랫폼 기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li> </ul>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II

## 트레이드 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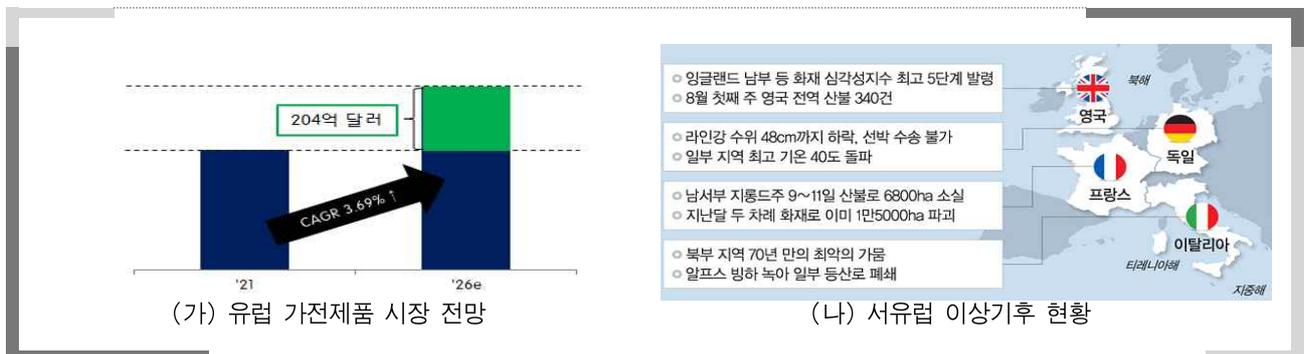
## II 트레이드 GPS<sup>4)</sup>

### 1 EU - 가정용전기기기

#### □ EU 가정용전기기기 시장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 전망

- EU 지역은 AI·IoT 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에너지 부족 문제 심화로 친환경·고효율 가전으로의 교체 수요가 확대
  - 유럽은 독일의 밀레·보쉬·지멘스, 영국(\*20.1.31일 EU 탈퇴)의 다이슨,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 등 거대 생활가전 자국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성숙도가 비교적 높은 시장이나,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프리미엄 가전 구매력이 높은 지역
  -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홈 등 ICT 신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가전제품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혁신적인 가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유럽 가전제품 시장은 '21~'26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하며 동 기간 내 시장 규모 역시 204억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Technavio, '22.4월)
    - \* 이와 더불어 EU 스마트 홈 시장도 '22년 174.5억 달러 → '26년 292.3억 달러(CAGR 13.8% ↑) 규모로 큰 폭 성장할 전망(Statista, '22.7월)
  - 게다가 유럽 지역은 라·우 전쟁 여파로 인한 가스 공급 중단과 더불어 올 여름 장기간 폭염, 기록적 가뭄 등으로 수력·원자력 발전난 등에 따른 전력 부족까지 가중되면서 올 겨울 에너지 부족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
  -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를 기점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으로의 교체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그림 2-1 | 유럽 가전제품 시장 전망 및 서유럽 이상기후 현황



자료 : Technavio, 2022.4. / 문화일보, 2022.8.12. 재인용

4)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한편 EU는 친환경적 요소 강화를 위해 ‘에코 디자인<sup>5)</sup>’ 지침을 개정, 가정용전기기기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
  - EU 집행위는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제품 사용 확대를 권고하기 위해 새로운 ‘에코 디자인’ 규정을 발표. 이전 규정 대비 품목에 대한 요구조건과 적용 범위가 확대(’22.3.31일)
    - ※ ’09년부터 시행된 ‘에코 디자인’ 지침은 기업·소비자 및 환경에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코 디자인 도입 영향으로 ’21년 한 해에만 EU 소비자들의 에너지 지출은 1,200억 유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0% 감소 (European Commission, ’22.3월)
  - (요구조건) ‘에너지 효율성’에 국한되어 있던 이전 규정을 한층 더 확대하여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등의 조건이 추가돼 눈길
  - (품목 범위) 또한 개정 전 지침은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관련 품목만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개정 후 규정에서는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품목 범위를 확대해 규제를 강화
  - 구체적인 품목 범위는 ‘에코 디자인 실무계획(Working Plan 2022~2024)’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가정용전기기기 업체들은 EU 규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 ※ 현재 EU 집행위는 상업용 세탁기·식기세척기·저온방열기(라디에이터 등) 품목들의 에너지 감축 가능성, 규정 적용의 현실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에코 디자인’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 기 적용된 냉장고 등도 요구조건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

표 2-1 EU 에코 디자인 규정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요구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 디자인 제품은 전 생애주기 내에서 하단의 조건을 준수</li> <li>- 내구성(durability), 신뢰성(reliability), 재활용 가능성(reusability), 수리 가능성(reparability), 탄소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영향(environmental impacts, including carbon and environmental footprint) 등</li> </ul>
적용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물리적 재화에 적용</li> <li>- 다만 음식, 의약품, 수의약품, 동식물 및 유기물 등의 품목은 제외</li> </ul>
디지털 제품 여권 (Digital Product Passports, D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로 해당 품목의 에코 디자인 관련 정보들을 담은 전자표식을 부착</li> <li>• 소비자들은 표식을 통해 상품의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연관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구매 가능</li> </ul>
무분별한 재고 처리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하는 기업은 연간 폐기 제품의 양을 공개하고 폐기에 대한 이유를 명시(중소기업은 예외)</li> </ul>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6. 재인용 (원소스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setting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5) 제품 생산·개발·유통·판매 등 전 과정과 제품 수명 주기 동안 미치게 되는 환경적 오염 감소 및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의미

## □ 강력한 환경 규제 및 러우 전쟁 여파로 에너지 대란에 직면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가정용전기기기 업체 간 친환경·고효율 혁신 기술 각축전이 진행

-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22(9.2~9.6일)’에 참가한 글로벌 업체들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비롯한 친환경·고효율·연결성이 강화된 가전제품들을 대거 공개

**표 2-2 | 글로벌 가전 업체별 경쟁 동향**

업체	주요 내용
<b>SAMSUN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목표 전기요금에 따라 자동으로 에너지 절약 모드를 적용해 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를 소개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감축 효과 및 연결성을 강조</li> <li>※ 삼성전자의 연간 가전 판매량을 기준으로 동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최대 절감 전력량은 연간 약 19만MWh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 이는 500MW급 화력발전소 1대를 약 한 달간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눈길</li> <li>• 유럽의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보다도 전력 사용량이 10% 적은 고효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신제품 등도 잇따라 공개하며 ‘가전 시장 내 에너지 효율 1위 달성’ 포부도 강조</li> <li>※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와 협력 개발한 미세 플라스틱 배출 저감 비스포크 세탁기 등 친환경적 제품도 선보여 주목</li> <li>• 또한 동 사는 ‘23년 말까지 유럽 지역에 출시하는 전 가전 품목에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하여 스마트 싱스 에너지 서비스 보급 확대도 꾀할 방침. 전기 요금 급등 등 에너지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유럽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li> </ul>
<b>LG전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동 사의 최고 등급 제품과 비교해도 소비전력이 10% 낮은 ‘2도어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99kWh 수준)’를 공개. 차별화된 핵심부품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를 탑재해 에너지 손실을 낮춘 점이 특징</li> <li>• 이외에도 재생 플라스틱을 제품 외관에 적용한 테이블형 공기청정기(‘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등도 전시</li> <li>• 또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기능 추가가 가능한 18종의 ‘업(UP) 가전’도 전시. 동 사의 스마트 홈 플랫폼 ‘LG 씽큐’를 통해 업데이트가 적용되며 사용자 편의에 따른 다양한 신기능 사용이 가능</li> <li>• 이어 냉장고 도어에 LED 기술을 적용해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도어 색상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프리미엄 냉장고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을 공개</li> <li>• 색상 변경은 ‘LG씽큐’를 통해 가능하며 동 제품에 블루투스 스피커도 탑재되어 있어 각종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한 점이 특징. 해당 제품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개선을 위한 것으로 프리미엄 수요를 겨냥</li> <li>※ 이외에도 장시간 도어가 열려 있을 시 도어 조명을 깜빡거리 알려주거나 어두운 환경 속에서 냉장고 근처로 다가갈 경우 도어 하단 조명이 켜지는 기능 등을 지원하며 ‘22년 국내에 선출시한 이후 ‘23년 글로벌 출시 예정</li> </ul>
<b>Miel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의 스마트 홈 애플리케이션 ‘밀레앳홈(Miele@Home)’에 가전제품 에너지 소비량을 지속 확인할 수 있는 ‘소비량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 스스로 전력 소비량을 실시간 인지하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li> <li>• 또한 고효율 단열 패널을 장착해 유럽 냉장고 에너지 등급 중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한 프리스탠딩 냉장고 신제품 ‘K 4000’를 공개. 냉장고 내부 공간 활용도도 높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은 점이 특징</li> <li>※ 해당 냉장고는 야채칸 속 식자재에 90분마다 수분을 미세 분무하여 기존 제품보다 5배 이상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축 효과도 강조</li> </ul>
<b>Electrolux</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탑재한 냉장고,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한 건조기, 물·전력 사용량을 자동 조절 하는 세탁기 등을 전시. 특히 ‘증기 활용 냄새 제거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기존 세탁기보다 물 사용량이 90% 가까이 축소가 가능한 점을 강조</li> <li>• 또한 재생플라스틱 활용을 76%까지 끌어올린 친환경 진공청소기도 전시해 눈길</li> </ul>

자료 : 언론 자료 취합



○ (참고) 친환경 및 홈 가드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식물 가전’ 트렌드가 부상

-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식물 재배 과정을 자동화한 ‘식물 생활가전’이 이번 IFA 2022에 대거 등장
  - ※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식물 가전 시장규모는 '22년 184억 달러에 달할 전망
- LG전자의 사내 독립기업인 스프라우트 컴퍼니가 전시한 ‘티브’, ‘티브미니’는 발광다이오드 조명과 자동 온도조절, 순환급수 시스템 등으로 식물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해 줘 주목
- 이외에도 밀레는 ‘씨앗바’를 넣어 허브, 야채 등을 기를 수 있는 ‘플랜트 큐브’를, 보쉬는 토마토·허브 등 50여개 이상의 식물을 실내에서 수경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 그로우’를 전시해 눈길
- 코로나19 장기화가 유발한 우울증·무기력증 타파를 위해 반려 식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ICT 기술이 접목된 식물 생활가전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수출 동향) EU 가정용전기기기 수출은 에너지 절감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나며 호조

- (전체) '22.8월 對EU 가정용전기기기 수출은 18.1% 증가한 0.3억 달러를 기록
  - (연간) '20년(3.1억 달러, 13.3%↑)에 EU 지역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기세척기(0.1억 달러, 139.7%↑), 에어컨(0.8억 달러, 25.1%↑) 등의 성장으로 3년 만에 반등
  - '21년(4.3억 달러, 40.5%↑)은 냉장고 수출(1.3억 달러, 19.4%↑) 반등과 가정용회전기기(1.9억 달러, 62.9%↑) 호조 등으로 7년 만에 4억 달러대를 상회. '22년(3.1억 달러, 13.8%↑, 8월 누적)도 EU 지역의 장기간 폭염 등으로 에어컨(1.1억 달러, 34.4%↑)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상승세가 지속
  - (월별) 러·우 전쟁, 장기간 폭염·가뭄 등으로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전력 창문형 에어컨 등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 '22.8월 수출은 에어컨(0.1억 달러, 162.5%↑) 수요 급등에 힘입어 전월의 일시적 역성장을 딛고 상승 전환

그림 2-2 | 對EU 가정용전기기기 연간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3 | 對EU 가정용전기기기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8	9	10	11	12	'22.1	2	3	4	5	6	7	8
가정용 전기기기	26.7 (△1.3)	35.9 (18.9)	35.9 (46.1)	43.3 (67.8)	38.7 (19.6)	41.6 (16.8)	40.9 (47.0)	48.5 (14.9)	46.3 (14.0)	40.4 (14.4)	34.5 (8.7)	29.6 (△16.1)	31.6 (18.1)
냉장고	11.0 (△1.0)	11.4 (6.9)	10.8 (22.2)	10.1 (5.4)	13.4 (△0.2)	12.3 (16.4)	10.1 (20.1)	12.8 (14.0)	9.4 (△30.6)	11.6 (29.9)	7.5 (△17.4)	6.9 (△36.5)	7.8 (△29.1)
가정용 회전기기	8.9 (△18.8)	15.3 (26.2)	19.0 (80.8)	24.8 (174.5)	18.8 (59.8)	23.7 (38.4)	24.4 (71.0)	29.0 (28.1)	31.1 (47.9)	22.6 (20.7)	21.3 (41.4)	16.6 (△7.8)	18.7 (109.1)
세탁기	0.5 (△75.0)	0.8 (△45.1)	2.8 (94.8)	4.1 (239.6)	2.8 (277.0)	0.7 (△69.0)	0.3 (△79.8)	0.6 (7.3)	1.0 (40.8)	0.6 (23.8)	0.6 (147.2)	0.6 (△15.0)	0.3 (△39.0)
에어컨	4.3 (△5.9)	10.5 (47.7)	10.5 (88.5)	13.2 (135.0)	12.0 (61.9)	14.0 (57.3)	15.0 (53.3)	16.4 (6.3)	18.4 (30.8)	13.3 (15.7)	13.1 (38.8)	12.7 (9.5)	11.4 (162.5)
전기 청소기	0.9 (819.9)	1.1 (1,701)	2.8 (1,498)	1.8 (35,994)	0.6 (463.6)	2.9 (33,004)	1.5 (8,769)	1.3 (25.8)	1.2 (△3.0)	1.6 (85.0)	0.9 (△31.5)	0.1 (△93.7)	2.5 (189.5)
식기 세척기	1.1 (0.7)	2.0 (337.6)	1.2 (77.5)	2.1 (180.4)	1.6 (140.8)	1.3 (△13.1)	2.2 (140.1)	3.7 (90.6)	5.1 (259.7)	2.9 (△6.5)	0.9 (△27.9)	1.1 (△23.5)	0.8 (△25.9)
기타 회전기기	2.1 (△31.3)	0.9 (△70.3)	1.7 (△35.4)	3.7 (149.6)	1.8 (△37.4)	3.0 (△33.4)	3.2 (75.3)	3.1 (△15.7)	1.4 (△61.3)	1.1 (△60.9)	2.3 (△18.4)	0.7 (△66.0)	1.6 (△22.0)
난방 및 전열기기	2.8 (59.9)	4.8 (60.5)	1.7 (△36.8)	3.7 (21.9)	2.8 (△31.6)	2.8 (△13.7)	3.0 (4.6)	3.6 (△3.6)	1.8 (△35.1)	2.2 (△49.0)	2.5 (△25.0)	3.1 (△10.6)	2.4 (△13.7)
기타 가정용기기	4.0 (24.4)	4.3 (△0.7)	4.2 (77.6)	4.7 (13.2)	3.8 (19.3)	2.8 (△40.5)	3.3 (51.0)	3.0 (△32.8)	4.0 (22.0)	4.0 (19.0)	3.1 (△25.1)	3.1 (1.5)	2.7 (△33.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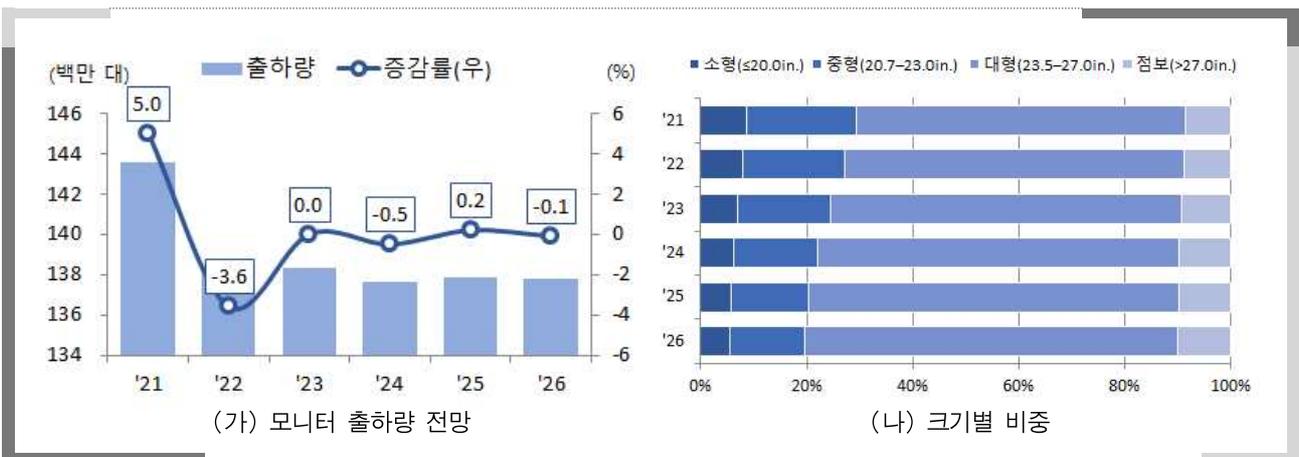


## 2 디스플레이 장치(모니터)

### □ 전체 모니터 시장은 정체되거나 게임 특화 모델, OLED 탑재 등 신규 수요 성장이 기대

- (전체 모니터 시장 전망) 글로벌 모니터 시장은 PC 수요 감소 등과 맞물리며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23인치 이상 모델 비중이 높아지는 등 대형화 추세가 예측(IDC, '22.3월)
  - '21년 모니터 출하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환경 전환 가속화 등으로 PC 시장 성장과 더불어 전년 대비 5.0% 증가한 1억 4,359만 대를 기록
  - '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PC 성장세 둔화 등 수요가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3.6% 감소한 1억 3,839만 대 출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모니터 시장 성장세는 1% 미만 수준으로 정체할 전망
    - ※ 글로벌 PC 시장 성장세 추이(%), IDC, '22.6월) : ('21년) 15.0%↑ → ('22년) △8.2% → ('23년) 0.4%↑ → ('24년) 3.9%↑ → ('25년) 1.0%↑ → ('26년) 0.1%↑
  - 다만 크기별로는 23.5인치 이상 대형 및 점보 사이즈 모니터 비중이 '21년 70.7%에서 '25년 80.5%로 확대되는 등 모니터 시장 내 대형화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

그림 2-3 | 글로벌 모니터 시장 출하량 전망 및 크기별 비중 추이



자료 : IDC, 2022.3.

- (신규 시장) 전체 모니터 시장 성장세는 정체 및 둔화가 예상되나 게이밍 모니터(게임 특화 모니터) 및 OLED 패널을 탑재한 제품 등 신규 시장은 확대될 전망
  - ※ 게이밍 모니터(Gaming monitor)는 일반적인 모니터에 비해 주사율<sup>6)</sup>이 높거나 패널 반응 속도가 빠른 등 스펙이 높으면서 게임 관련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 특화 모니터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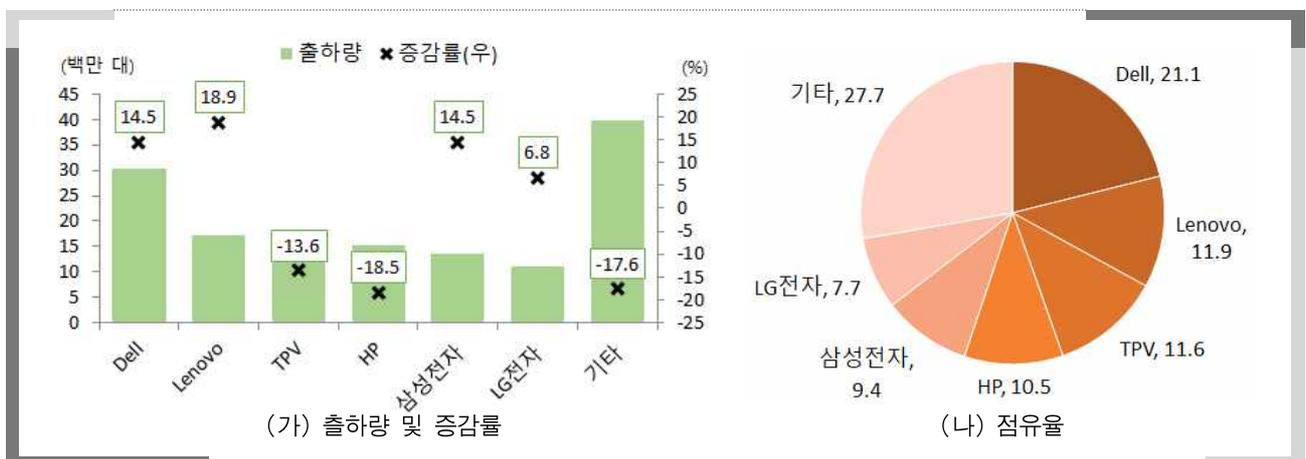
6) 주사율은 1초에 몇 장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모니터의 주사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장면을 출력해 부드러운 화면 구현이 가능. 일반적인 모니터의 주사율은 60Hz 정도이나, 게이밍 모니터의 주사율은 144Hz~240Hz로 향상

- (게이밍 모니터) '20년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77% 이상 증가한 1,420만 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연평균 13.2%씩 성장하면서 '25년에는 2,640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IDC, '21.9월)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ICT 기기 및 소비자 가전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고화소의 게임 출시 등에 따른 고화질 및 차별화된 성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게이밍 모니터 시장이 급격히 성장
- 반면 게이밍 PC 시장은 동기간 4,130만 대 → 5,230만 대로 연평균 4.8% 성장에 그치는 등 게이밍 모니터 시장 증가율이 게이밍 PC 시장 수치를 상회하며 빠른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OLED 모니터) 삼성전자·LG전자·Dell·MSI 등 모니터 업체가 OLED 탑재 모델 출시를 확대하면서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에서 OLED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9% → '22년 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DSCC, '22.7월 재인용)
- 이에 따라 '22년 모니터용 OLED 패널 시장 규모는 전년(5,700만 달러) 대비 279% 증가한 2억 1,600만 달러로 예상되며 동기간 출하량도 641% 증가할 것으로 예측(DSCC, '22.7월 재인용)
  - ※ '22.2분기 전세계 OLED 패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특히 모니터용 OLED 패널 매출은 연이은 OLED 모니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DSCC, '22.8월 재인용)

## □ 모니터 상위 업체간 격차는 대동소이한 가운데 국내 기업은 고사양 제품으로 입지 확대

- (경쟁 현황) '21년 모니터 시장은 Dell이 점유율 21.1%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권 업체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IDC, '22.3월)
  - Dell은 '21년 전년 대비 14.5% 증가한 3,030만 대를 출하하면서 점유율('21년 19.3% → '22년 21.1%)을 확대하며 선두 입지를 강화
  -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6위를 차지했으나 게임 특화 모델 및 OLED 등 프리미엄 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각각 14.5%, 6.8% 증가하면서 상위 업체를 추격

그림 2-4 | 2021년 모니터 상위 6개 기업 출하량 및 점유율



자료 : IDC, 2022.3.



- **(국내 업체 동향)** 계열사의 OLED 패널 기술을 바탕으로 OLED 탑재, 새로운 폼팩터 등 게임 특화 모델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
  - (삼성전자) 24형·27형·32형 등 다양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22.8월 55형 차세대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아크'를 영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출시하는 등 새로운 폼팩터의 고성능 게이밍 제품을 중심으로 모니터 시장을 공략
  - 최근 모니터 시장에서 OLED 활용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는 '22.4분기 처음으로 QD-OLED 패널이 탑재된 게이밍 모니터 출시를 계획하며 모니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
  - (LG전자) '22.5월 프리미엄 게이밍 수요에 따라 OLED 패널을 탑재한 LG 울트라기어 OLED 게이밍 모니터를 처음으로 출시했으며 8월에는 커브드 OLED 패널 채택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등 OLED 제품을 중심으로 게이밍 모니터 시장 입지를 확대
    - ※ 한편 LG전자는 '22.9.2~6일 독일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2'에서 게이밍 스크린 시장을 겨냥해 화면을 구부렸다 펼 수 있는 벤더블(Bendable) 게이밍 올레드 TV '플렉스(FLEX)'를 공개해 주목

그림 2-5 | 국내 가전 업체별 주요 모니터 모델



(가) 삼성전자 '오디세이 아크'

(나) LG전자 울트라 기어 '48GQ900'

(다) LG전자 울트라기어 '45GR95Q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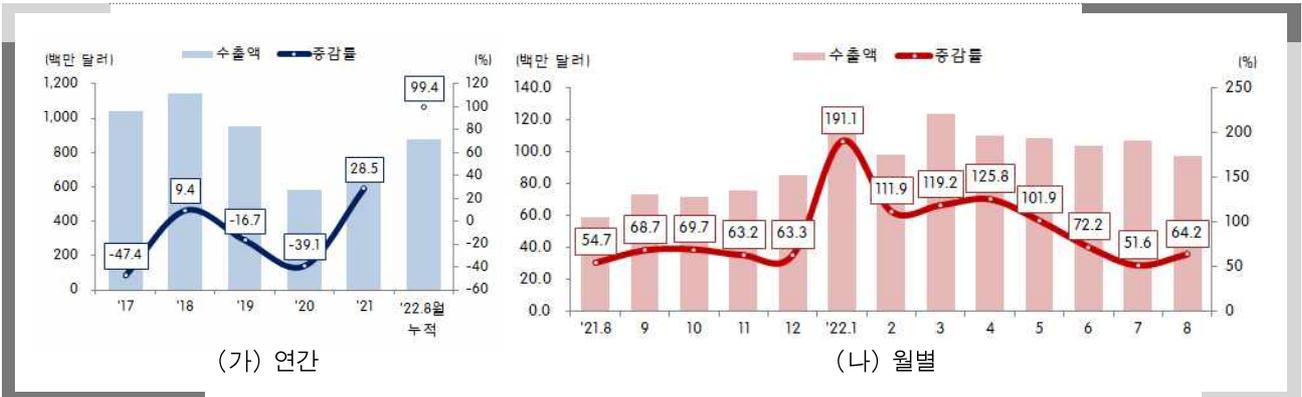
자료 : 각 사, 언론 자료 재인용

### □ 디스플레이 장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베트남·폴란드 등이 선전

- **(전체)** 디스플레이 장치 수출은 게이밍 모니터, OLED 탑재 제품 증가 등 신규 수요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22년 연간 기준 10억 달러대로 수출 회복이 기대
  - (연간) '18년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지속하던 디스플레이 장치는 이후 PC 시장 수요 감소 및 중국 업체 등 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19~'20년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지속
  - '21년에는 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이 급진전되면서 PC 수요 확대와 함께 재택시간 증가에 따른 PC 게임向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28.5% 증가한 7.5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 국면에 진입
  - '22년엔 특히 OLED 등 고사양 및 대화면 모니터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8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9.4% 증가한 8.7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연간 1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할 것으로 예측

- (월별) '19.2월 이후 '20.2월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지속하던 디스플레이 장치 수출은 국내 기업의 게임 특화 모델 출시 등에 힘입어 '21.4월 성장세로 반등
- 이후 '22.8월까지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2.8월에도 전년 대비 64.2% 증가한 9,718만 달러를 기록, 1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 가도

**그림 2-6 | 디스플레이 장치 누적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완제품 비중이 높은 미국과 더불어 부분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폴란드 등이 수출 상위국으로 부상
  - 미국은 평판 모니터 등 완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치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최대 수출국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22.8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한 2.8억 달러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
  - 베트남·폴란드는 지난해 수출 상위 5위권에서 밀려났으나 '22년 들어 고사양 제품 생산 증가 등을 배경으로 해외 가전 생산 거점向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분품을 중심으로 세 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각각 2·3위 국가에 랭크되는 등 선전

**표 2-4 | 디스플레이 장치 수출 상위 5대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321.0	29.4	43.1	미국	33.3	22.3	34.3	283.5	53.2	32.4
2	멕시코	64.2	307.4	8.6	베트남	19.3	1,480.0	19.9	185.0	2,860.0	21.2
3	중국	46.1	50.3	6.2	폴란드	10.1	471.6	10.4	88.2	506.3	10.1
4	호주	33.8	30.2	4.5	중국	6.3	107.1	6.4	74.9	169.5	8.6
5	일본	31.4	3.7	4.2	멕시코	5.4	-24.4	5.6	51.4	34.9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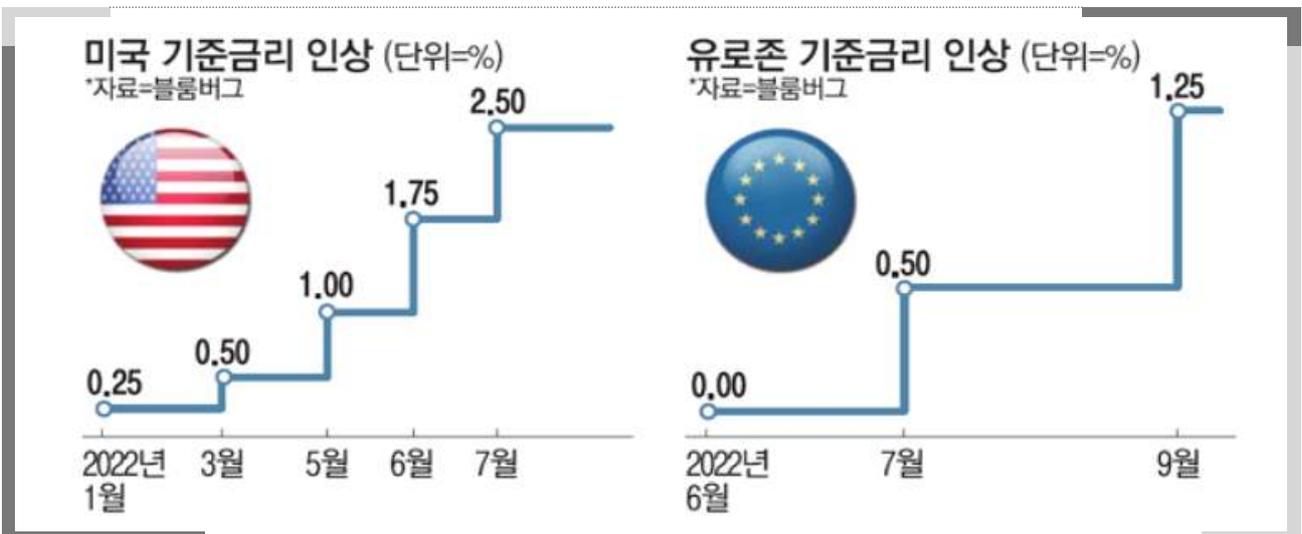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 □ 미국·유럽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전망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의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및 고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고물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22.3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으나 이후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5월 0.5%p, 6월 0.75%p, 7월 0.75%p 등 강력한 고금리 정책을 연이어 시행하며 물가 안정화를 도모
  -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22.8월 미국 CPI(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8.0%↑)를 상회하는 등 물가 성장을 둔화 정도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Fed는 9.22일 0.75%p의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3.25%로 상승
    - ※ '22.8월 미국 CPI는 고금리 정책과 국제 유가 하락에도 임대료와 식료품비,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 1981.1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22.6월(9.1%↑) 이후 미국 CPI 상승폭은 둔화('22.7월 8.5% → 8월 8.3%)되고 있으나 시장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금리 전망치는 '22년 말 4.4% '23년 말 4.6%로 예상되며 '22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 성장으로 '22.6월(1.7%↑)대비 1.5%p 하향 조정
    - ※ 미국 CPI 월별 추이(미국 노동부) : ('22.1월) 7.5%↑ → (2월) 7.9%↑ → (3월) 8.5%↑ → (4월) 8.3%↑ → (5월) 8.6%↑ → (6월) 9.1%↑ → (7월) 8.5%↑ → (8월) 8.3%↑

그림 2-7 유럽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자료 : 매일경제, 2022.9.16.

- (유럽) 유럽중앙은행(ECB)도 '22.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 스텝'을 시행한 데 이어 9.8일에는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
  - ※ ECB는 과거 유로화 탄생 직후 0.75%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지만 기술적인 조정 차원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실질적인 역대 최대 폭 금리 인상
- 이번 금리 인상은 유로존의 '22.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9.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행보
- 다만 가파른 기준 금리 인상에도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22년 8.1%↑ → '23년 5.5%↑ → '24년 2.3%↑)가 목표치(2%)를 상회하면서 ECB는 내년까지 금리 인상 행보 지속 가능성을 경고
  - ※ 주요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중립 금리를 1.5~2%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23.상반기 2.5%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
- 미국·유럽 등의 대규모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은 글로벌 경제 침체를 경고
  - (IMF) 높은 인플레이션을, 공급망 문제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의 경색이 확대되면서 '22.3분기 경제성장 동력은 더욱 상실될 수 있다고 예상('22.9.15일)
  - 또한 경제 하방 위험이 계속되면서 내년 일부 국가들은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다만 이 같은 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여파의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
    - ※ 한편 '22.7월 IMF는 이 같은 요인에 따라 글로벌 성장을 전망을 '22년 3.2%↑, '23년 2.9%↑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10월 신규 전망이 발표될 전망
  - (WB) 세계 3대 경제국인 미국·중국·유로존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이 향후 몇 달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세계 경제를 '파괴적(devastating)'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
  - 이와 더불어 다른 국가들도 강력한 통화·재정 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23년 글로벌 기준 금리 평균이 약 4%로 전년 대비 2%p 상승할 전망
  - 금리 인상 및 긴축 정책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경기 침체는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 G7이 러시아 에너지 제재 시행, 러시아는 유럽향 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맞대응

-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발표('22.9.2일)하며 러시아 제재를 강화
  - G7은 '22.9.2일 영상으로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에 합의하는 골자의 공동성명을 채택

7)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국



-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원유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만 해상 운송이 가능토록 해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얻는 수익을 제한하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도
- 공동성명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초기 가격 상한선은 기술적인 투입 범위를 기반으로 하며 가격 수준은 필요에 따라 재검토될 것으로 예측. 도입 시기는 '22.12.5일 EU의 '6차 對러 제재 패키지' 시행에 맞춰 실시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과 EU의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인도 등이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적극 수입하면서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향후 양국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입 가능성은 낮을 전망
- 한편 EU는 '22.9.9일 개최된 회원국간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등이 반대하면서 합의에는 실패
- 러시아는 G7의 원유 가격 상한제 발표 이후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 제한을 연장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단행하며 압박
  - 러시아의 최대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은 9.2일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 유지 보수 중 누출을 발견했다며 파이프라인 폐쇄를 발표했으며 모든 결함이 수정될 때까지 가스 공급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당초 가즈프롬은 '22.8.29일 유지 보수를 위해 3일간 '노르트스트림1' 라인을 폐쇄했으며, 9.3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했으나 돌연 폐쇄기간을 연장
  - 러시아의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에너지 위기는 고조될 것으로 전망

그림 2-8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경로 및 유럽 천연가스 가격 추이



자료 : News1, 2022.9.6. / 매일경제, 2022.9.6.(원소스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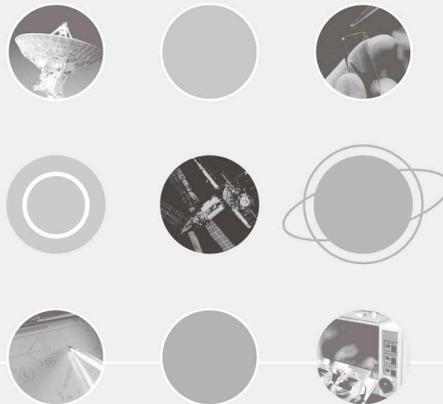
## □ 미국 주도 경제 통상 플랫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협상이 개시

- '22.9.8~9일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미국 등 14개 참여국<sup>8)</sup>은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
  - ※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22.5.23일 공식 출범. IPEF는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고 교역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비전통적인 방식의 경제협력을 지향
- 이번 장관회의는 IPEF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본 회의에서 합의된 각료 선언문에는 무역·공급망·기후변화·공정경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협의 방향 내포
- (무역)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촉진, 농업기술 혁신과 식량 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협력. 다만 인도는 본 합의에는 불참
  - ※ 인도의 무역 의제 불참은 구체적인 시장 접근 없는 환경·노동문제 등이 향후 자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 (공급망)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
- (청정경제)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을 확대하기로 결정. 아울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복안
- (공정경제)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로 합의.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확대 및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
- 참여국들은 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특히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역내 공동과제를 논의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

8)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브루나이·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피지 등 14개국



# III 부록



### Ⅲ 부록

####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252,245	9.4	100.0	450,792	1.2	100.0	2,720,793	8.0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84,065	10.9	70.1	315,712	0.2	70.0	1,915,542	9.8	70.4
- 전자부품	2,301,413	12.4	43.8	197,210	0.2	43.7	1,183,766	10.1	43.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420	16.4	3.3	15,182	2.7	3.4	96,550	22.4	3.5
- 통신 및 방송기기	387,675	3.6	7.4	31,031	-1.6	6.9	200,574	9.5	7.4
- 영상 및 음향기기	92,022	10.7	1.8	7,756	4.9	1.7	49,966	19.5	1.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28,536	9.2	13.9	64,533	-0.1	14.3	384,685	5.1	14.1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42,324	4.2	16.0	71,988	2.2	16.0	428,608	2.3	15.8
- 통신서비스	373,863	1.7	7.1	31,320	0.8	6.9	187,592	1.5	6.9
· 유선통신서비스	100,651	-0.2	1.9	8,393	0.6	1.9	50,475	1.1	1.9
· 무선통신서비스	252,120	2.7	4.8	21,132	0.6	4.7	126,135	1.4	4.6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1,092	-0.2	0.4	1,794	3.8	0.4	10,983	4.1	0.4
- 방송서비스	201,835	3.3	3.8	17,932	7.2	4.0	106,462	4.2	3.9
· 지상파방송서비스	38,896	8.8	0.7	3,323	1.2	0.7	19,294	0.8	0.7
· 유료방송서비스	70,042	3.8	1.3	6,440	9.0	1.4	38,171	9.5	1.4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2,371	0.8	1.8	8,130	8.5	1.8	48,753	1.7	1.8
· 기타방송서비스	526	1.0	0.0	39	-12.2	0.0	244	-4.9	0.0
- 정보서비스	266,626	8.7	5.1	22,736	0.5	5.0	134,553	2.0	4.9
· 정보인프라서비스	43,841	1.3	0.8	3,772	5.1	0.8	22,754	8.2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2,785	10.3	4.2	18,965	-0.4	4.2	111,799	0.9	4.1
○ 소프트웨어	725,855	8.3	13.8	63,091	5.4	14.0	376,644	6.4	13.8
- 패키지 소프트웨어	167,332	7.3	3.2	13,662	-2.3	3.0	76,468	-5.5	2.8
- 게임 소프트웨어	145,061	0.8	2.8	13,516	16.5	3.0	78,259	9.6	2.9
- IT 서비스	413,462	11.6	7.9	35,913	4.8	8.0	221,917	10.0	8.2

자료 : KEA, KAIT, 2022.9.



## 2 2022년 8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1/4분기	1,464.0	489.5	13.6	1,366.0	309.2	19.0	98.0	180.3
2/4분기	1,567.3	540.8	29.6	1,492.3	319.0	19.1	75.0	221.8
3/4분기	1,645.4	610.4	27.7	1,568.9	340.8	19.1	76.5	269.6
4/4분기	1,767.3	635.4	24.9	1,723.7	381.2	22.0	43.6	254.2
상반기	3,031.3	1,030.3	21.5	2,858.3	628.2	19.1	173.0	402.1
하반기	3,412.7	1,245.8	26.2	3,292.6	722.0	20.6	120.1	523.7
1월	480.1	162.8	21.5	444.6	107.8	22.0	35.5	55.0
2월	447.1	152.6	11.4	424.0	92.0	19.4	23.0	60.6
3월	536.9	174.1	8.9	497.4	109.5	15.9	39.5	64.6
4월	512.3	170.5	32.5	508.9	107.9	21.7	3.3	62.6
5월	507.3	177.3	27.4	479.1	105.2	17.9	28.1	72.1
6월	547.8	193.0	29.1	504.3	105.8	17.8	43.5	87.1
7월	554.6	194.8	30.1	536.8	113.2	14.9	17.9	81.5
8월	531.7	202.3	33.0	515.8	113.9	23.8	15.8	88.5
9월	559.1	213.3	21.1	516.4	113.7	18.9	42.8	99.6
10월	556.6	199.1	21.5	538.5	121.1	18.5	18.1	78.0
11월	603.3	214.9	30.0	573.6	127.7	23.1	29.7	87.2
12월	607.3	221.4	23.3	611.6	132.4	24.3	-4.3	89.0
2022년	4,677.7	1,610.4	12.8	4,925.0	1,011.2	18.2	-247.3	599.3
1/4분기	1,734.0	617.1	26.1	1,772.9	365.8	18.3	-38.8	251.3
2/4분기	1,771.3	607.2	12.3	1,837.0	378.0	18.5	-65.6	229.1
상반기	3,505.4	1,224.3	18.8	3,609.8	743.8	18.4	-104.5	480.5
1월	554.6	196.1	20.4	603.6	123.3	14.4	-49.0	72.8
2월	541.5	188.5	23.5	533.2	113.9	23.9	8.4	74.6
3월	637.9	232.5	33.6	636.1	128.6	17.5	1.8	104.0
4월	578.5	199.3	16.9	603.3	121.4	12.5	-24.8	77.9
5월	615.9	201.9	13.9	631.9	126.1	19.8	-16.0	75.8
6월	576.9	206.0	6.7	601.8	130.5	23.3	-24.9	75.4
7월	605.7	193.1	-0.9	653.7	132.2	16.7	-48.0	60.9
8월	566.7	193.1	-4.6	661.5	135.2	18.7	-94.7	57.9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24.0	100.0	19,307	-4.6	100.0	161,044	12.8	100.0
○ 전자부품	165,059	25.9	72.5	14,011	-6.5	72.6	116,699	13.2	72.5
- 반도체	128,699	28.4	56.5	10,959	-6.8	56.8	91,862	14.4	57.0
· 메모리반도체	82,431	28.9	36.2	5,750	-24.7	29.8	54,383	5.6	33.8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	17.5	4,661	31.0	24.1	33,283	35.9	20.7
- 디스플레이	24,657	19.0	10.8	2,093	-5.3	10.8	16,797	11.4	10.4
- 전자관	5	17.1	0.0	0	-59.2	0.0	3	16.2	0.0
- 수동부품	2,344	15.4	1.0	160	-20.5	0.8	1,450	-8.6	0.9
PCB	5,790	15.1	2.5	524	-1.4	2.7	4,174	12.4	2.6
- 접속부품	3,338	17.0	1.5	259	-4.0	1.3	2,264	2.3	1.4
- 기타전자부품	160	21.0	0.1	11	-19.4	0.1	100	-4.5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25.0	7.6	1,263	-25.3	6.5	12,593	19.4	7.8
- 컴퓨터	2,293	11.3	1.0	72	-60.4	0.4	677	-52.7	0.4
- 주변기기	15,093	27.4	6.6	1,191	-21.1	6.2	11,916	30.8	7.4
· 디스플레이장치	745	28.5	0.3	97	64.2	0.5	875	99.4	0.5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14.4	0.2	41	63.9	0.2	315	10.9	0.2
· 보조기억장치	12,954	28.2	5.7	978	-28.0	5.1	10,003	29.5	6.2
○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22.4	7.4	1,367	-2.6	7.1	11,249	8.4	7.0
- 통신기기	16,171	22.4	7.1	1,363	0.4	7.1	11,201	12.0	7.0
· 유선통신기기	957	16.0	0.4	97	15.7	0.5	801	32.7	0.5
· 무선통신기기	15,214	22.9	6.7	1,266	-0.6	6.6	10,400	10.7	6.5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24.6	6.1	1,137	-3.3	5.9	9,347	8.7	5.8
- 방송용 장비	571	21.6	0.3	4	-91.6	0.0	48	-87.0	0.0
○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9.9	1.0	166	-6.5	0.9	1,492	-6.0	0.9
- 영상기기	1,528	-14.4	0.7	96	-16.8	0.5	899	-14.3	0.6
· TV	1,065	-27.7	0.5	55	-32.4	0.3	559	-25.0	0.3
LCD TV	34	-82.9	0.0	3	60.4	0.0	36	88.5	0.0
TV 부분품	1,014	-13.0	0.4	49	-37.4	0.3	510	-28.7	0.3
· 셋탑박스	22	66.0	0.0	1	107.3	0.0	13	-5.4	0.0
- 음향기기	802	-0.1	0.4	65	9.6	0.3	565	10.3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6.4	0.0	5	77.7	0.0	27	9.1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17.3	11.4	2,499	26.6	12.9	19,011	10.6	11.8
- 가정용전기기기	5,709	36.0	2.5	442	2.2	2.3	4,261	17.6	2.6
- 사무용기기	427	25.0	0.2	39	-13.4	0.2	225	-24.5	0.1
- 의료용기기	2,564	25.6	1.1	208	17.0	1.1	1,815	12.9	1.1
- 전기 장비	11,920	14.2	5.2	1,219	29.0	6.3	8,909	12.3	5.5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15.2	3.9	950	35.3	4.9	6,609	12.7	4.1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35,024	19.9	100.0	13,515	18.7	100.0	101,117	18.2	100.0
○전자부품	74,610	21.0	55.3	7,971	23.4	59.0	59,229	27.2	58.6
- 반도체	61,719	21.9	45.7	6,718	26.1	49.7	49,266	28.6	48.7
· 메모리반도체	21,579	14.2	16.0	2,251	19.6	16.7	17,691	38.8	17.5
· 시스템반도체	31,479	27.7	23.3	3,735	36.9	27.6	25,659	27.7	25.4
- 디스플레이	3,869	1.3	2.9	412	16.3	3.0	3,581	47.8	3.5
- 전자관	64	14.5	0.0	7	184.2	0.1	45	18.4	0.0
- 수동부품	2,800	25.6	2.1	217	-8.8	1.6	1,785	-4.2	1.8
PCB	3,101	31.2	2.3	328	17.9	2.4	2,396	26.8	2.4
- 접속부품	2,518	16.1	1.9	206	-1.1	1.5	1,629	-5.2	1.6
- 기타전자부품	436	52.0	0.3	74	83.7	0.5	462	67.5	0.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749	24.8	12.4	1,322	-5.3	9.8	12,029	7.9	11.9
- 컴퓨터	10,233	28.7	7.6	750	-4.0	5.6	7,249	6.1	7.2
- 주변기기	6,516	19.1	4.8	571	-6.9	4.2	4,780	10.7	4.7
· 디스플레이장치	1,090	24.4	0.8	108	23.6	0.8	969	37.3	1.0
· 프린터(부분품포함)	963	11.1	0.7	82	-2.2	0.6	652	-1.6	0.6
· 보조기억장치	3,243	21.5	2.4	289	-13.8	2.1	2,294	6.8	2.3
○통신 및 방송기기	16,362	12.8	12.1	1,516	16.7	11.2	9,861	-1.9	9.8
- 통신기기	15,815	12.7	11.7	1,505	20.0	11.1	9,750	0.5	9.6
· 유선통신기기	2,131	11.2	1.6	167	-12.6	1.2	1,221	-15.5	1.2
· 무선통신기기	13,684	12.9	10.1	1,338	25.9	9.9	8,529	3.4	8.4
휴대폰(부분품 포함)	10,176	12.2	7.5	990	29.6	7.3	5,971	-0.5	5.9
- 방송용 장비	547	14.8	0.4	11	-75.4	0.1	111	-68.8	0.1
○영상 및 음향기기	3,915	15.9	2.9	300	2.3	2.2	2,467	-4.5	2.4
- 영상기기	2,464	14.9	1.8	182	2.5	1.3	1,514	-6.6	1.5
· TV	1,891	18.2	1.4	118	-6.7	0.9	1,058	-16.3	1.0
LCD TV	929	40.0	0.7	62	13.2	0.5	550	-8.8	0.5
TV 부분품	575	-29.7	0.4	29	-10.3	0.2	299	-28.4	0.3
· 셋탑박스	214	11.0	0.2	23	7.9	0.2	150	19.2	0.1
- 음향기기	1,099	9.5	0.8	100	10.1	0.7	758	3.7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353	52.8	0.3	19	-26.5	0.1	195	-15.9	0.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388	18.9	17.3	2,406	24.0	17.8	17,531	15.6	17.3
-가정용전기기기	4,560	15.6	3.4	386	7.4	2.9	3,324	7.1	3.3
-사무용기기	33	2.5	0.0	3	7.9	0.0	24	9.5	0.0
-의료용기기	2,287	4.8	1.7	213	9.6	1.6	1,572	5.3	1.6
-전기 장비	8,256	39.8	6.1	1,023	43.8	7.6	6,942	36.1	6.9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191	66.1	3.1	668	61.2	4.9	4,124	72.7	4.1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8월 당월			8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135,024	92,584	19,307	13,515	5,792	59,927
○전자부품	165,059	74,610	90,448	14,011	7,971	6,040	57,470
- 반도체	128,699	61,719	66,980	10,959	6,718	4,241	42,596
· 메모리반도체	82,431	21,579	60,852	5,750	2,251	3,499	36,692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79	8,273	4,661	3,735	926	7,624
- 디스플레이	24,657	3,869	20,788	2,093	412	1,681	13,215
- 전자관	5	64	-59	0	7	-6	-41
- 수동부품	2,344	2,800	-456	160	217	-57	-336
PCB	5,790	3,101	2,689	524	328	196	1,777
- 접속부품	3,338	2,518	820	259	206	53	635
- 기타전자부품	160	436	-276	11	74	-63	-36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16,749	637	1,263	1,322	-59	564
- 컴퓨터	2,293	10,233	-7,940	72	750	-679	-6,572
- 주변기기	15,093	6,516	8,577	1,191	571	620	7,136
· 디스플레이장치	745	1,090	-345	97	108	-11	-95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963	-548	41	82	-40	-337
· 보조기억장치	12,954	3,243	9,711	978	289	688	7,709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16,362	380	1,367	1,516	-149	1,388
- 통신기기	16,171	15,815	356	1,363	1,505	-142	1,451
· 유선통신기기	957	2,131	-1,174	97	167	-70	-420
· 무선통신기기	15,214	13,684	1,530	1,266	1,338	-72	1,871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10,176	3,818	1,137	990	146	3,376
- 방송용 장비	571	547	24	4	11	-7	-63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3,915	-1,548	166	300	-134	-975
- 영상기기	1,528	2,464	-936	96	182	-86	-615
· TV	1,065	1,891	-826	55	118	-64	-499
LCD TV	34	929	-895	3	62	-59	-514
TV 부분품	1,014	575	439	49	29	20	211
· 셋탑박스	22	214	-192	1	23	-22	-137
- 음향기기	802	1,099	-297	65	100	-34	-19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353	-315	5	19	-14	-16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23,388	2,667	2,499	2,406	94	1,479
- 가정용전기기기	5,709	4,560	1,149	442	386	56	937
- 사무용기기	427	33	394	39	3	36	201
- 의료용기기	2,564	2,287	277	208	213	-5	243
- 전기 장비	11,920	8,256	3,664	1,219	1,023	196	1,96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4,191	4,583	950	668	281	2,485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27,608	24.0	100.0	19,307	-4.6	100.0	161,044	12.8	100.0
○ 아시아	176,605	24.7	77.6	15,095	-5.4	78.2	124,062	12.9	77.0
- 중국(홍콩 포함)	107,525	23.8	47.2	8,274	-14.4	42.9	71,079	5.4	44.1
- 일 본	4,314	10.7	1.9	344	-4.3	1.8	3,008	7.3	1.9
- ASEAN	49,033	21.0	21.5	4,504	-0.9	23.3	36,388	21.6	22.6
· 싱가포르	4,775	47.8	2.1	666	54.2	3.5	4,777	60.8	3.0
· 인 니	893	14.7	0.4	101	34.3	0.5	751	31.6	0.5
· 말 련	2,507	19.3	1.1	259	24.1	1.3	1,974	23.7	1.2
· 태 국	1,354	19.8	0.6	110	3.4	0.6	1,042	19.7	0.6
· 베트남	35,133	18.0	15.4	2,997	-8.1	15.5	24,570	15.6	15.3
- 대 만	12,671	59.6	5.6	1,387	21.8	7.2	10,347	31.2	6.4
- 인 도	2,781	25.2	1.2	560	141.6	2.9	2,984	77.7	1.9
○ 북미	28,776	26.4	12.6	2,418	-5.0	12.5	20,852	13.5	12.9
- 미 국	27,947	26.5	12.3	2,335	-5.2	12.1	20,085	12.5	12.5
- 캐나다	714	21.2	0.3	71	-3.3	0.4	679	54.3	0.4
○ 유럽	15,286	21.6	6.7	1,162	-1.7	6.0	11,198	14.7	7.0
- 유럽연합	12,771	22.8	5.6	1,046	4.7	5.4	9,677	18.7	6.0
· 독 일	3,522	21.9	1.5	312	11.6	1.6	2,445	8.7	1.5
· 프랑스	844	41.9	0.4	52	-22.1	0.3	616	18.3	0.4
· 이탈리아	469	43.0	0.2	53	97.8	0.3	431	41.0	0.3
- 영 국	1,044	23.5	0.5	40	-43.7	0.2	776	14.7	0.5
- 러시아	791	9.1	0.3	31	-46.2	0.2	331	-33.6	0.2
○ 중동	1,593	-5.2	0.7	136	18.1	0.7	1,112	6.1	0.7
- 사우디	228	-4.0	0.1	26	114.7	0.1	199	43.3	0.1
- UAE	493	-13.4	0.2	40	28.9	0.2	327	-1.5	0.2
○ 중남미	4,304	13.1	1.9	418	14.4	2.2	3,140	6.0	1.9
- 브라질	1,457	0.5	0.6	119	6.2	0.6	1,011	-2.5	0.6
- 멕시코	2,511	19.4	1.1	280	21.1	1.5	1,936	14.5	1.2
- 칠 레	120	49.5	0.1	5	-29.2	0.0	50	-37.7	0.0
○ 대양주	721	1.4	0.3	52	18.9	0.3	491	2.6	0.3
- 호 주	618	-2.5	0.3	46	19.0	0.2	431	5.1	0.3
○ 아프리카	309	10.1	0.1	24	13.4	0.1	181	-13.8	0.1
※ 브릭스	82,033	22.0	36.0	7,395	2.7	38.3	59,737	17.0	37.1

자료 : IITP, KTSPI

**표 3-7 |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35,024	19.9	100.0	13,515	18.7	100.0	101,117	18.2	100.0
○ 아시아	112,900	21.6	83.6	11,907	24.3	88.1	85,458	20.3	84.5
- 중국(홍콩 포함)	59,700	23.8	44.2	4,670	-6.8	34.6	42,790	17.0	42.3
- 일 본	11,978	14.9	8.9	1,085	14.7	8.0	8,398	11.9	8.3
- ASEAN	23,339	13.5	17.3	2,458	17.7	18.2	17,483	13.2	17.3
· 싱가포르	4,079	3.5	3.0	332	-8.4	2.5	2,859	6.3	2.8
· 인 니	925	94.8	0.7	71	-21.6	0.5	540	-9.7	0.5
· 말 련	3,601	9.9	2.7	357	27.0	2.6	2,630	11.8	2.6
· 태 국	2,007	29.9	1.5	182	0.1	1.3	1,461	6.9	1.4
· 베트남	11,177	14.7	8.3	1,370	30.3	10.1	8,836	19.0	8.7
- 대 만	17,770	31.6	13.2	2,016	31.9	14.9	15,033	31.3	14.9
- 인 도	105	31.8	0.1	10	31.7	0.1	79	13.4	0.1
○ 북미	9,087	8.6	6.7	730	-5.1	5.4	5,984	-2.5	5.9
- 미 국	8,720	8.5	6.5	693	-6.1	5.1	5,707	-3.2	5.6
- 캐나다	246	4.3	0.2	25	19.4	0.2	186	17.4	0.2
○ 유럽	7,925	12.8	5.9	727	10.9	5.4	5,678	10.8	5.6
- 유럽연합	6,880	12.9	5.1	631	10.2	4.7	4,979	12.4	4.9
· 독 일	3,283	11.4	2.4	304	7.5	2.3	2,382	10.2	2.4
· 프랑스	929	24.0	0.7	105	28.1	0.8	758	45.8	0.7
· 이탈리아	356	1.4	0.3	36	36.0	0.3	232	-5.4	0.2
- 영 국	562	9.3	0.4	52	42.7	0.4	373	2.1	0.4
- 러시아	25	18.0	0.0	1	-43.2	0.0	11	-39.2	0.0
○ 중동	655	18.6	0.5	45	21.2	0.3	478	3.7	0.5
- 사우디	2	53.2	0.0	0	-1.3	0.0	1	-71.9	0.0
- UAE	43	-41.5	0.0	1	-80.3	0.0	5	-83.1	0.0
○ 중남미	985	10.7	0.7	79	-8.0	0.6	622	-1.6	0.6
- 브라질	16	42.8	0.0	0	-32.6	0.0	5	-61.5	0.0
- 멕시코	965	11.2	0.7	78	-7.9	0.6	614	-0.4	0.6
- 칠 레	1	-25.0	0.0	0	1,504.4	0.0	1	232.8	0.0
○ 대양주	115	26.1	0.1	25	210.5	0.2	84	10.5	0.1
- 호 주	79	28.4	0.1	24	313.3	0.2	70	34.9	0.1
○ 아프리카	18	-66.0	0.0	1	-18.5	0.0	10	-21.4	0.0
※ 브릭스	58,620	23.7	43.4	4,641	-5.8	34.3	42,058	16.8	41.6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수출	수입	수지	8월 당월			8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27,608	135,024	92,584	19,307	13,515	5,792	59,927
○ 아시아	176,605	112,900	63,705	15,095	11,907	3,189	38,604
- 중국(홍콩 포함)	107,525	59,700	47,825	8,274	4,670	3,605	28,290
- 일 본	4,314	11,978	-7,664	344	1,085	-740	-5,391
- ASEAN	49,033	23,339	25,694	4,504	2,458	2,047	18,905
· 싱가포르	4,775	4,079	696	666	332	334	1,918
· 인 니	893	925	-33	101	71	29	211
· 말 련	2,507	3,601	-1,094	259	357	-97	-656
· 태 국	1,354	2,007	-653	110	182	-72	-419
· 베트남	35,133	11,177	23,956	2,997	1,370	1,627	15,734
- 대 만	12,671	17,770	-5,099	1,387	2,016	-630	-4,686
- 인 도	2,781	105	2,676	560	10	550	2,905
○ 북미	28,776	9,087	19,689	2,418	730	1,688	14,868
- 미 국	27,947	8,720	19,228	2,335	693	1,642	14,378
- 캐나다	714	246	468	71	25	46	493
○ 유럽	15,286	7,925	7,360	1,162	727	435	5,521
- 유럽연합	12,771	6,880	5,891	1,046	631	415	4,698
· 독 일	3,522	3,283	238	312	304	7	63
· 프 랑스	844	929	-85	52	105	-53	-142
· 이탈리아	469	356	113	53	36	17	199
- 영 국	1,044	562	482	40	52	-12	403
- 러시아	791	25	766	31	1	31	321
○ 중동	1,593	655	939	136	45	90	635
- 사우디	228	2	226	26	0	25	199
- UAE	493	43	450	40	1	40	321
○ 중남미	4,304	985	3,320	418	79	339	2,517
- 브라질	1,457	16	1,441	119	0	119	1,006
- 멕시코	2,511	965	1,546	280	78	202	1,322
- 칠 레	120	1	119	5	0	5	49
○ 대양주	721	115	607	52	25	27	407
- 호 주	618	79	538	46	24	22	361
○ 아프리카	309	18	291	24	1	23	171
※ 브릭스	82,033	58,620	23,413	7,395	4,641	2,754	17,678

자료 : IITP, KTSPi

###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2,557	23.5	100.0	1,104	6.9	100.0	7,121	7.3	100.0
○ 전자부품	3,468	32.9	27.6	305	2.7	27.6	2,060	12.9	28.9
- 반도체	2,463	31.2	19.6	229	9.3	20.7	1,546	20.7	21.7
- 디스플레이 패널	327	33.9	2.6	13	-55.1	1.2	91	-50.5	1.3
- 전자관	1	39.3	0.0	0	-0.5	0.0	1	-11.8	0.0
- 수동부품	173	49.9	1.4	14	-1.3	1.3	113	31.5	1.6
- PCB	209	38.1	1.7	18	-5.6	1.6	121	7.1	1.7
- 접속부품	258	31.1	2.1	26	15.6	2.3	156	10.4	2.2
- 기타 전자부품	36	50.6	0.3	5	60.1	0.5	32	73.4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437	20.4	19.4	237	16.8	21.4	1,520	16.5	21.3
- 컴퓨터	1,681	21.4	13.4	151	6.1	13.6	939	4.5	13.2
- 주변기기	755	18.2	6.0	86	41.7	7.8	582	42.8	8.2
· 디스플레이장치	216	33.2	1.7	21	23.8	1.9	145	33.6	2.0
· 프린터(부품포함)	142	10.2	1.1	14	25.6	1.3	83	4.8	1.2
· 보조기억장치	184	6.2	1.5	11	-26.0	1.0	78	-26.2	1.1
· 저장 매체	34	8.3	0.3	25	782.3	2.3	174	844.1	2.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80	25.2	1.4	15	-1.3	1.3	102	6.8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751	15.6	21.9	177	-12.3	16.0	1,307	-8.1	18.4
- 통신기기	2,611	15.3	20.8	176	-7.6	15.9	1,302	-3.3	18.3
· 유선통신기기	538	7.9	4.3	46	9.3	4.1	283	4.0	4.0
· 무선통신기기	2,073	17.4	16.5	96	-35.1	8.7	806	-24.9	11.3
- 방송국용 기기	132	22.1	1.1	10	-8.4	0.9	60	-16.3	0.8
○ 영상 및 음향기기	836	21.4	6.7	79	12.4	7.1	462	3.2	6.5
- 영상기기	402	19.2	3.2	30	-12.8	2.7	187	-13.6	2.6
- 음향기기	269	14.7	2.1	23	8.9	2.1	145	0.0	2.0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5	41.5	1.3	17	16.5	1.5	75	-12.6	1.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3,065	24.5	24.4	307	17.3	27.8	1,773	8.1	24.9
- 가정용 기기	1,182	22.5	9.4	104	6.1	9.4	658	1.6	9.2
- 사무용 기기	49	23.1	0.4	6	30.2	0.5	33	29.9	0.5
- 의료용 기기	182	12.5	1.5	15	0.2	1.3	84	-15.5	1.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68	10.5	2.1	26	3.9	2.3	128	-16.8	1.8
- 전기 장비	1,384	31.6	11.0	155	29.7	14.1	862	20.8	12.1
· 건전지 및 축전지	362	50.0	2.9	57	91.4	5.2	310	84.6	4.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8,213	20.9	100.0	625	-7.5	100.0	4,379	-1.6	100.0
○ 전자부품	5,857	22.7	71.3	462	-5.1	73.8	3,313	4.5	75.7
- 반도체	4,977	24.4	60.6	394	-4.2	63.0	2,802	4.7	64.0
- 디스플레이 패널	314	6.1	3.8	28	5.7	4.5	220	20.2	5.0
- 전자관	2	18.3	0.0	0	-8.6	0.0	1	-15.0	0.0
- 수동부품	223	24.7	2.7	14	-26.8	2.2	114	-6.1	2.6
- PCB	123	13.3	1.5	9	-13.9	1.5	64	-1.6	1.5
- 접속부품	212	17.2	2.6	16	-13.9	2.5	111	-8.5	2.5
- 기타 전자부품	5	11.1	0.1	0	-10.2	0.1	3	9.5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531	17.8	6.5	45	4.0	7.2	312	4.3	7.1
- 컴퓨터	43	49.5	0.5	4	30.0	0.7	25	8.2	0.6
- 주변기기	488	15.7	5.9	41	2.0	6.6	287	3.9	6.6
· 디스플레이장치	5	-34.3	0.1	0	-3.9	0.1	2	-37.9	0.0
· 프린터(부품포함)	63	12.3	0.8	4	-8.8	0.7	31	-15.0	0.7
· 보조기억장치	292	13.9	3.6	20	-18.4	3.1	145	-13.8	3.3
· 저장 매체	48	1.3	0.6	9	128.4	1.5	66	142.1	1.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47.5	1.0	7	5.5	1.2	44	5.4	1.0
○ 통신 및 방송기기	635	24.6	7.7	25	-45.6	4.0	150	-54.2	3.4
- 통신기기	575	28.5	7.0	25	-39.4	4.0	149	-48.8	3.4
· 유선통신기기	93	34.6	1.1	9	22.4	1.5	52	8.0	1.2
· 무선통신기기	482	27.4	5.9	7	-79.3	1.1	34	-86.0	0.8
- 방송국용 기기	27	8.3	0.3	2	-4.9	0.3	14	-9.4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33	18.5	2.8	16	-5.1	2.5	128	12.1	2.9
- 영상기기	186	25.6	2.3	10	-17.2	1.7	88	-2.5	2.0
- 음향기기	38	-10.4	0.5	3	-14.9	0.4	24	15.3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8	52.6	0.1	1	-15.2	0.1	4	-9.5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58	10.8	11.7	78	-7.0	12.4	476	-12.0	10.9
- 가정용 기기	218	12.3	2.7	16	-8.4	2.6	116	-5.9	2.6
- 사무용 기기	4	-2.7	0.1	0	-28.7	0.0	2	-27.4	0.0
- 의료용 기기	136	20.5	1.7	10	-6.8	1.6	62	-18.6	1.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94	8.2	4.8	31	-14.8	5.0	170	-25.1	3.9
- 전기 장비	205	8.8	2.5	17	-8.3	2.7	108	-3.4	2.5
· 건전지 및 축전지	74	4.2	0.9	5	-23.8	0.8	37	-6.6	0.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847	12.4	100.0	250	5.5	100.0	1,723	6.2	100.0
○ 전자부품	1,013	19.3	35.6	88	-0.9	35.1	609	6.0	35.3
- 반도체	776	20.7	27.2	67	-3.2	26.7	456	3.8	26.5
- 디스플레이 패널	35	12.4	1.2	3	-4.8	1.0	21	1.5	1.2
- 전자관	3	7.1	0.1	0	-31.3	0.1	2	-1.3	0.1
- 수동부품	38	21.3	1.3	3	1.7	1.3	24	11.9	1.4
- PCB	12	-2.2	0.4	1	1.9	0.4	8	11.9	0.5
- 접속부품	146	16.5	5.1	14	12.7	5.5	97	16.4	5.6
- 기타 전자부품	2	7.0	0.1	0	-6.2	0.1	2	32.2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90	9.2	13.7	36	11.7	14.4	233	4.3	13.5
- 컴퓨터	167	9.7	5.9	16	13.5	6.2	98	5.7	5.7
- 주변기기	222	8.9	7.8	20	10.3	8.2	135	3.3	7.8
· 디스플레이장치	15	-0.5	0.5	1	29.7	0.6	11	22.5	0.6
· 프린터(부품포함)	35	3.9	1.2	3	-0.4	1.1	20	-1.3	1.2
· 보조기억장치	52	1.8	1.8	4	-9.7	1.7	28	-11.1	1.6
· 저장 매체	72	18.5	2.5	8	23.5	3.1	45	8.2	2.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9	10.7	1.7	4	15.1	1.7	30	9.8	1.8
○ 통신 및 방송기기	388	12.2	13.6	32	3.8	12.9	221	-0.5	12.8
- 통신기기	347	11.9	12.2	31	11.6	12.5	214	7.8	12.4
· 유선통신기기	169	4.9	5.9	17	19.2	6.8	106	8.0	6.1
· 무선통신기기	178	19.4	6.2	13	-8.5	5.0	97	-3.5	5.6
- 방송국용 기기	28	15.9	1.0	2	11.8	1.0	16	3.4	0.9
○ 영상 및 음향기기	85	1.3	3.0	8	15.5	3.1	58	24.3	3.4
- 영상기기	33	-1.7	1.2	2	-12.0	0.9	18	-2.0	1.0
- 음향기기	36	-1.6	1.3	3	-1.8	1.2	22	6.4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	16.2	0.6	1	6.9	0.5	9	9.0	0.5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71	8.2	34.1	86	10.1	34.5	602	8.5	35.0
- 가정용 기기	169	9.2	6.0	14	0.0	5.5	98	2.5	5.7
- 사무용 기기	9	8.7	0.3	1	17.0	0.3	6	9.2	0.3
- 의료용 기기	278	6.1	9.8	25	11.1	9.8	171	6.7	9.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7.3	10.4	24	-0.1	9.7	169	-0.5	9.8
- 전기 장비	217	11.6	7.6	20	18.0	8.2	143	15.2	8.3
· 건전지 및 축전지	52	5.3	1.8	5	21.0	1.8	32	8.5	1.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323	19.8	100.0	589	15.3	100.0	3,973	16.4	100.0
○ 전자부품	1,110	24.2	17.6	103	12.3	17.5	726	17.9	18.3
- 반도체	860	23.7	13.6	79	11.6	13.4	564	19.0	14.2
- 디스플레이 패널	36	18.2	0.6	2	-10.8	0.4	17	-18.8	0.4
- 전자관	3	7.2	0.0	0	4.9	0.0	2	-0.1	0.0
- 수동부품	42	39.5	0.7	4	13.6	0.8	31	31.0	0.8
- PCB	23	34.0	0.4	2	12.9	0.4	15	17.1	0.4
- 접속부품	139	23.0	2.2	14	20.2	2.4	92	16.5	2.3
- 기타 전자부품	7	44.2	0.1	1	32.8	0.1	5	38.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70	14.1	24.8	154	12.8	26.2	963	12.7	24.2
- 컴퓨터	983	11.8	15.5	98	12.1	16.6	583	7.9	14.7
- 주변기기	587	18.0	9.3	56	14.1	9.6	381	20.9	9.6
· 디스플레이장치	101	30.0	1.6	10	27.6	1.8	73	40.1	1.8
· 프린터(부품포함)	140	20.1	2.2	12	-5.5	2.0	84	5.4	2.1
· 보조기억장치	104	21.6	1.6	10	2.0	1.6	63	9.0	1.6
· 저장 매체	162	11.6	2.6	17	21.3	2.8	108	31.0	2.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10.4	1.3	8	38.9	1.4	52	23.2	1.3
○ 통신 및 방송기기	1,265	16.2	20.0	100	10.6	17.0	731	13.8	18.4
- 통신기기	1,139	16.9	18.0	97	20.1	16.5	710	23.5	17.9
· 유선통신기기	443	9.6	7.0	43	25.3	7.4	282	17.7	7.1
· 무선통신기기	696	22.2	11.0	50	7.8	8.4	404	20.4	10.2
- 방송국용 기기	117	9.1	1.9	11	22.1	1.8	71	12.9	1.8
○ 영상 및 음향기기	462	29.5	7.3	44	35.5	7.5	302	32.2	7.6
- 영상기기	187	16.0	3.0	11	-32.1	1.9	88	-4.8	2.2
- 음향기기	164	34.0	2.6	14	30.0	2.5	100	17.5	2.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1	51.6	1.8	11	102.7	1.9	64	25.0	1.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16	22.6	30.3	187	17.8	31.8	1,251	16.7	31.5
- 가정용 기기	575	26.8	9.1	53	12.5	9.0	370	14.4	9.3
- 사무용 기기	28	15.2	0.4	3	25.8	0.5	20	27.5	0.5
- 의료용 기기	363	16.8	5.7	32	4.8	5.5	225	10.5	5.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0	11.9	4.7	26	7.2	4.4	173	2.3	4.4
- 전기 장비	651	28.5	10.3	71	31.1	12.1	451	25.6	11.4
· 건전지 및 축전지	161	53.9	2.5	22	54.3	3.7	130	47.6	3.3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06	17.2	100.0	17,460	14.5	100.0	107,399	11.8	100.0
○ 전자부품	90,410	17.4	52.2	9,427	17.7	54.0	57,400	16.6	53.4
- 반도체	54,546	17.5	31.5	5,925	22.1	33.9	35,937	22.7	33.5
- 디스플레이 패널	7,618	4.2	4.4	701	8.0	4.0	4,255	1.8	4.0
- 전자관	287	10.0	0.2	28	34.2	0.2	180	13.5	0.2
- 수동부품	11,593	23.5	6.7	1,112	7.3	6.4	7,069	10.2	6.6
- PCB	3,336	11.7	1.9	411	32.1	2.4	2,215	26.8	2.1
- 접속부품	12,240	20.5	7.1	1,157	7.7	6.6	7,161	2.2	6.7
- 기타 전자부품	789	51.8	0.5	92	34.1	0.5	583	36.5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224	14.3	8.2	1,410	11.8	8.1	8,691	6.2	8.1
- 컴퓨터	1,040	4.7	0.6	112	13.6	0.6	606	3.5	0.6
- 주변기기	13,184	15.1	7.6	1,299	11.7	7.4	8,085	6.4	7.5
· 디스플레이장치	1,339	16.0	0.8	122	2.3	0.7	633	-21.1	0.6
· 프린터(부품포함)	9,404	16.5	5.4	914	10.6	5.2	5,758	5.7	5.4
· 보조기억장치	177	-3.9	0.1	15	23.9	0.1	83	-21.0	0.1
· 저장 매체	1,699	10.7	1.0	196	25.8	1.1	1,251	37.1	1.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66	10.1	0.3	53	5.5	0.3	359	9.8	0.3
○ 통신 및 방송기기	7,342	12.5	4.2	397	-33.7	2.3	2,436	-41.5	2.3
- 통신기기	4,131	9.7	2.4	395	11.6	2.3	2,421	2.2	2.3
· 유선통신기기	1,071	-2.0	0.6	120	30.7	0.7	697	8.8	0.6
· 무선통신기기	3,060	14.5	1.8	150	-42.7	0.9	943	-45.5	0.9
- 방송국용 기기	2,902	13.3	1.7	353	59.5	2.0	1,911	17.3	1.8
○ 영상 및 음향기기	6,029	13.8	3.5	885	68.0	5.1	4,887	61.9	4.6
- 영상기기	2,379	23.1	1.4	196	-35.1	1.1	1,183	-12.4	1.1
- 음향기기	483	8.0	0.3	49	20.6	0.3	286	-1.3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167	8.6	1.8	290	57.0	1.7	1,521	10.4	1.4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5,301	18.6	31.9	5,341	10.2	30.6	33,986	8.0	31.6
- 가정용 기기	11,579	18.3	6.7	1,058	5.8	6.1	6,841	1.8	6.4
- 사무용 기기	416	12.5	0.2	40	30.1	0.2	228	-1.2	0.2
- 의료용 기기	6,656	11.7	3.8	672	19.5	3.9	4,114	9.0	3.8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2,045	22.0	12.7	2,068	3.7	11.8	13,123	4.7	12.2
- 전기 장비	14,605	17.6	8.4	1,373	9.1	7.9	8,945	8.9	8.3
· 건전지 및 축전지	7,746	24.9	4.5	695	2.4	4.0	4,818	9.9	4.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31	15.5	100.0	18,292	29.5	100.0	116,990	19.6	100.0
○ 전자부품	47,567	30.0	27.4	5,692	41.4	31.1	36,126	44.2	30.9
- 반도체	37,305	31.7	21.5	4,565	45.3	25.0	29,022	49.2	24.8
- 디스플레이 패널	1,904	13.1	1.1	169	0.6	0.9	1,109	13.1	0.9
- 전자관	127	6.0	0.1	13	10.9	0.1	67	-9.6	0.1
- 수동부품	1,413	27.8	0.8	156	26.2	0.9	1,013	33.3	0.9
- PCB	1,620	24.4	0.9	166	20.9	0.9	1,114	23.3	1.0
- 접속부품	4,505	25.3	2.6	507	34.9	2.8	3,146	25.4	2.7
- 기타 전자부품	692	49.7	0.4	117	73.5	0.6	656	77.3	0.6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8,054	0.6	16.2	3,220	44.0	17.6	19,475	17.3	16.6
- 컴퓨터	16,259	-4.0	9.4	1,887	50.9	10.3	10,755	9.3	9.2
- 주변기기	11,795	7.7	6.8	1,333	35.3	7.3	8,720	28.8	7.5
· 디스플레이장치	1,897	22.1	1.1	187	12.6	1.0	1,165	8.8	1.0
· 프린터(부품포함)	3,880	2.3	2.2	414	29.2	2.3	2,725	22.6	2.3
· 보조기억장치	2,450	8.9	1.4	260	35.1	1.4	1,669	17.9	1.4
· 저장 매체	1,570	-0.5	0.9	270	104.0	1.5	1,796	105.3	1.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998	12.7	1.2	202	16.4	1.1	1,365	15.0	1.2
○ 통신 및 방송기기	36,793	16.2	21.2	3,029	8.5	16.6	21,082	0.8	18.0
- 통신기기	33,546	16.5	19.4	3,013	18.5	16.5	20,898	9.4	17.9
· 유선통신기기	8,387	8.9	4.8	903	26.8	4.9	5,453	15.7	4.7
· 무선통신기기	25,158	19.2	14.5	1,952	6.7	10.7	14,297	-0.7	12.2
- 방송국용 기기	2,721	10.1	1.6	280	31.9	1.5	1,842	19.8	1.6
○ 영상 및 음향기기	12,284	7.9	7.1	1,341	39.8	7.3	8,347	17.6	7.1
- 영상기기	6,839	8.3	3.9	609	10.7	3.3	3,526	-13.8	3.0
- 음향기기	3,276	3.7	1.9	275	3.3	1.5	2,007	7.0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2,169	13.9	1.3	193	34.8	1.1	1,156	2.3	1.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8,633	14.2	28.1	5,009	21.8	27.4	31,960	13.7	27.3
- 가정용 기기	15,308	12.3	8.8	1,526	8.2	8.3	9,067	-0.8	7.7
- 사무용 기기	726	0.0	0.4	62	7.5	0.3	445	2.7	0.4
- 의료용 기기	7,468	13.7	4.3	727	33.3	4.0	4,737	13.3	4.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850	13.4	5.7	905	12.3	4.9	6,079	7.1	5.2
- 전기 장비	15,280	18.0	8.8	1,729	33.8	9.5	11,219	29.0	9.6
· 건전지 및 축전지	2,857	24.6	1.6	397	75.0	2.2	2,278	49.1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634	25.7	100.0	245	18.5	100.0	968	22.9	100.0
○ 전자부품	2,053	27.9	78.0	197	21.4	80.4	774	26.4	80.0
- 반도체	1,812	28.4	68.8	179	24.7	73.1	700	30.2	72.3
- 디스플레이 패널	102	22.5	3.9	6	-23.3	2.5	27	-20.4	2.8
- 전자관	0	10.4	0.0	0	-48.5	0.0	0	-10.9	0.0
- 수동부품	42	30.5	1.6	3	-4.8	1.3	13	5.1	1.4
- PCB	66	17.4	2.5	6	21.2	2.4	23	19.8	2.4
- 접속부품	30	35.7	1.1	3	15.1	1.1	11	22.7	1.1
- 기타 전자부품	0	24.1	0.0	0	21.6	0.0	0	19.6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6	14.0	9.0	20	9.0	8.1	78	9.8	8.1
- 컴퓨터	88	7.8	3.4	8	22.4	3.4	30	19.5	3.1
- 주변기기	148	18.0	5.6	12	1.0	4.7	48	4.5	5.0
· 디스플레이장치	7	10.3	0.3	1	31.5	0.2	2	3.8	0.2
· 프린터(부품포함)	3	24.0	0.1	0	32.4	0.1	1	19.7	0.1
· 보조기억장치	8	11.7	0.3	1	-6.2	0.3	2	0.4	0.3
· 저장 매체	106	15.1	4.0	7	-18.2	2.9	31	-9.5	3.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24	38.6	0.9	3	104.0	1.2	11	88.9	1.1
○ 통신 및 방송기기	127	16.0	4.8	12	24.9	4.9	46	26.8	4.8
- 통신기기	112	15.5	4.3	11	30.3	4.4	42	30.5	4.3
· 유선통신기기	78	17.3	3.0	7	28.1	3.0	29	25.9	2.9
· 무선통신기기	34	11.5	1.3	3	35.3	1.4	13	42.0	1.3
- 방송국용 기기	14	19.5	0.5	1	4.1	0.5	5	14.1	0.5
○ 영상 및 음향기기	83	31.6	3.1	5	-27.5	1.9	22	-15.6	2.3
- 영상기기	76	30.9	2.9	4	-31.5	1.7	20	-18.4	2.1
- 음향기기	6	42.8	0.2	1	25.8	0.2	2	21.3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0	16.3	0.0	0	45.5	0.0	0	18.8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34	22.6	5.1	12	11.9	4.7	47	14.0	4.8
- 가정용 기기	27	19.5	1.0	2	-1.6	0.8	9	6.9	0.9
- 사무용 기기	7	19.7	0.3	1	4.3	0.2	2	25.6	0.2
- 의료용 기기	7	14.0	0.3	1	7.0	0.2	2	15.7	0.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43	21.2	1.6	4	16.9	1.6	14	7.5	1.5
- 전기 장비	51	27.2	1.9	5	16.7	1.8	18	22.1	1.9
· 건전지 및 축전지	10	19.6	0.4	1	45.7	0.4	4	48.8	0.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440	10.6	100.0	129	19.6	100.0	532	22.9	100.0
○ 전자부품	1,076	12.8	74.7	100	24.2	77.1	408	26.2	76.8
- 반도체	957	12.7	66.5	90	26.5	69.4	369	28.3	69.4
- 디스플레이 패널	19	-4.8	1.3	1	-29.3	0.9	5	-19.6	1.0
- 전자관	0	8.5	0.0	0	-26.3	0.0	0	16.7	0.0
- 수동부품	34	24.6	2.3	3	20.5	2.4	11	12.4	2.1
- PCB	36	16.3	2.5	3	22.0	2.6	14	25.8	2.5
- 접속부품	28	13.2	1.9	2	0.0	1.7	9	7.7	1.7
- 기타 전자부품	2	45.5	0.1	0	-11.3	0.1	1	6.0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	6.8	6.4	7	18.5	5.8	31	20.8	5.9
- 컴퓨터	34	11.7	2.3	3	85.4	2.7	12	38.9	2.2
- 주변기기	59	4.2	4.1	4	-9.3	3.1	20	12.2	3.7
· 디스플레이장치	8	24.5	0.5	1	-9.4	0.4	2	11.3	0.5
· 프린터(부품포함)	4	-10.3	0.3	0	-25.9	0.2	1	-11.6	0.2
· 보조기억장치	12	8.2	0.8	1	-5.6	0.7	3	-18.3	0.6
· 저장 매체	27	-3.0	1.9	2	-4.8	1.4	10	23.5	1.9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	18.1	0.5	0	-20.2	0.4	3	45.2	0.5
○ 통신 및 방송기기	84	1.4	5.8	6	1.2	4.8	27	3.3	5.0
- 통신기기	76	1.3	5.3	6	9.7	4.5	25	8.3	4.7
· 유선통신기기	24	4.5	1.7	2	10.4	1.7	8	7.4	1.6
· 무선통신기기	52	-0.1	3.6	4	9.3	2.8	17	8.8	3.2
- 방송국용 기기	5	4.4	0.3	0	-14.6	0.3	1	-1.7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5	2.8	1.8	2	-12.1	1.3	8	8.3	1.6
- 영상기기	17	13.0	1.2	1	-20.6	0.8	5	1.9	1.0
- 음향기기	6	-3.4	0.4	1	9.8	0.4	2	10.9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28.6	0.2	0	-7.0	0.1	1	47.5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63	4.9	11.3	14	5.7	11.0	57	15.3	10.7
- 가정용 기기	40	9.0	2.8	4	11.6	2.9	14	15.5	2.7
- 사무용 기기	2	10.2	0.1	0	5.5	0.1	1	14.3	0.1
- 의료용 기기	15	-8.4	1.1	2	46.7	1.3	6	27.7	1.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68	4.8	4.7	5	-7.8	4.2	23	9.7	4.3
- 전기 장비	37	7.1	2.6	3	10.0	2.6	14	20.5	2.5
· 건전지 및 축전지	12	11.7	0.8	1	15.3	0.9	5	29.0	0.9

자료 : Uncomtrade, KITA

##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9	15,237	-15.0	93,826	-5.4	909	-32.4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7	-15.2	24,180	33.8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	2,449	-42.2	47,739	343.7	88	-58.1
	2/4p	2,867	-35.6	4,298	-74.9	63	-72.0
	직접구매 (수입)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2/4p		18,972	50.0	63,235	-4.6	3,107	-25.5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1.1월	177.5	257.0	24.4	29.3	118.2	129.9	45.2	61.0	88.6	100.9	147.8	183.6
2월	171.9	248.4	20.6	24.9	103.4	113.7	43.2	58.3	70.9	81.5	142.1	175.4
3월	195.4	281.9	21.0	24.6	119.4	131.4	50.6	68.3	75.5	90.6	170.4	208.9
4월	189.4	242.9	22.1	25.4	113.9	125.7	50.3	67.0	79.5	95.6	155.4	190.7
5월	207.5	264.9	23.4	26.6	112.8	124.4	54.1	71.6	74.3	89.6	146.8	180.9
6월	231.7	292.9	22.1	24.3	121.6	133.7	50.8	66.9	76.0	92.7	160.8	199.3
<b>7월</b>	<b>227.7</b>	<b>273.4</b>	<b>25.3</b>	<b>27.8</b>	<b>132.6</b>	<b>146.2</b>	<b>51.7</b>	<b>66.2</b>	<b>83.4</b>	<b>101.8</b>	<b>151.1</b>	<b>180.8</b>
8월	244.9	293.1	25.1	28.7	131.4	131.2	48.7	62.4	93.9	114.4	150.6	180.4
9월	256.8	308.7	23.6	28.9	128.2	128.3	56.7	72.5	104.8	130.7	167.6	200.6
10월	230.0	288.9	22.2	29.5	127.8	127.9	52.4	66.9	104.8	129.1	162.5	189.7
11월	251.3	316.8	22.7	31.1	127.2	108.0	56.7	72.4	112.3	132.5	168.8	198.0
12월	261.8	330.2	25.6	35.8	131.4	112.6	65.3	82.6	107.1	126.9	178.4	210.3
'22.1월	224.4	303.6	29.5	42.1	123.8	106.6	30.5	40.0	85.8	102.2	152.0	183.1
2월	219.0	295.1	27.1	39.3	118.7	102.1	26.0	34.3	81.3	99.3	151.4	180.8
3월	272.3	364.7	32.5	47.9	136.7	116.8	26.1	34.6	105.0	128.1	181.0	216.0
4월	229.5	309.6	27.8	42.0	128.7	111.1	30.8	40.2	87.0	105.8	153.7	179.1
5월	242.2	327.3	26.0	40.5	130.4	113.3	32.4	42.5	71.2	87.4	159.7	187.1
6월	257.5	350.8	20.4	33.3	124.5	109.2	30.7	41.4	73.5	94.3	148.7	180.7
<b>7월</b>	<b>228.8</b>	<b>337.1</b>	<b>22.5</b>	<b>37.0</b>	<b>125.9</b>	<b>110.8</b>	<b>30.8</b>	<b>40.3</b>	<b>73.6</b>	<b>94.8</b>	<b>149.0</b>	<b>179.1</b>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1.1월	148.5	207.8	33.7	31.1	119.9	131.6	206.2	214.2	162.3	190.7	148.8	142.8
2월	133.5	186.8	26.4	22.8	101.8	111.1	155.5	160.4	112.7	132.3	136.6	132.1
3월	151.8	212.5	30.5	25.1	130.6	141.6	198.7	206.4	134.4	157.8	162.6	156.9
4월	151.9	206.8	28.7	22.2	123.8	131.3	167.7	174.1	149.6	176.3	135.7	131.0
5월	153.0	210.6	26.4	20.1	132.9	137.5	169.4	177.6	120.6	142.2	136.6	131.8
6월	157.8	217.0	29.7	21.6	132.4	136.1	147.1	149.5	109.6	130.3	140.1	135.1
<b>7월</b>	<b>175.1</b>	<b>235.0</b>	<b>25.5</b>	<b>18.4</b>	<b>134.7</b>	<b>139.5</b>	<b>154.5</b>	<b>156.4</b>	<b>130.3</b>	<b>159.3</b>	<b>139.2</b>	<b>134.5</b>
8월	174.2	233.8	25.3	19.3	139.2	144.5	157.4	159.5	139.8	170.9	131.3	126.1
9월	178.5	239.6	29.7	24.9	138.3	143.6	160.0	161.5	130.9	162.4	126.3	120.9
10월	176.2	239.1	29.9	28.8	141.2	145.9	145.0	146.8	201.2	239.5	135.6	131.1
11월	197.0	269.8	37.0	37.4	155.7	160.7	159.5	161.8	169.9	202.2	146.8	142.3
12월	205.5	281.5	26.3	27.7	146.0	150.1	189.7	192.3	157.4	187.4	165.7	161.7
'22.1월	191.7	268.4	45.3	50.1	137.1	140.7	215.5	219.2	127.0	151.4	135.1	132.2
2월	178.7	250.3	39.8	46.5	120.9	123.9	186.0	189.2	119.9	142.7	130.8	126.6
3월	197.0	275.9	37.8	45.8	138.1	141.7	187.2	192.0	154.5	184.2	150.7	145.9
4월	185.9	261.4	37.0	46.8	138.7	142.6	167.0	172.3	137.1	167.4	150.3	146.2
5월	196.6	277.7	38.2	52.0	136.2	143.6	158.3	163.9	142.6	176.4	141.6	139.7
6월	213.7	302.2	33.6	50.0	141.0	148.8	156.4	162.8	126.8	156.4	148.4	147.9
<b>7월</b>	<b>219.0</b>	<b>325.0</b>	<b>28.5</b>	<b>44.8</b>	<b>135.5</b>	<b>143.7</b>	<b>170.0</b>	<b>177.6</b>	<b>122.8</b>	<b>151.5</b>	<b>149.0</b>	<b>149.8</b>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임진국
- ⊙ 과제 책임자 : 허창희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홍수표, 최동렬, 반치호, 유영신,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이유경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50, 팩스 : (042) 612-8209